Real estate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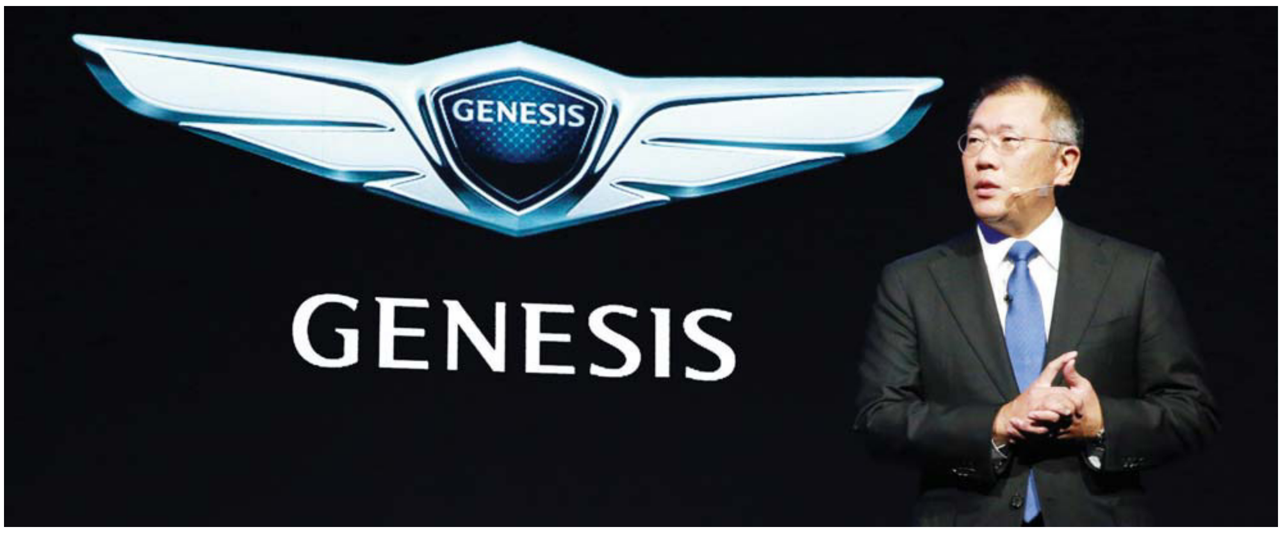
롯데월드타워에 특별한 오피스텔 들어선다

metro®

메트로 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제333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4일>

코스피	2052.77	(+4.37)
코스닥	686.18	(+4.05)
금리(국고채 3년)	1.68	(+0.01)
환율(원·달러)	1133.50	(변동없음)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론칭 행사를 열고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현대차,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출범

제네시스 나가신다, 아우디 섰거라



람보르기니·벤틀리 디자이너 영입
2020년까지 라인업 6종 구축키로
G+숫자 조합 글로벌 차명 체계

폴크스바겐의 아우디,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등에 맞설 현대차의 글로벌 고급 브랜드로 '제네시스'가 선정됐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 고급차 6종으로 라인업을 구축해 세계 유수의 브랜드와 맞대결을 벌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PP)에서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론칭을 전격 발표했다.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고 성능·디자인 등에서 대형 럭셔리 세단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제네시스를 고급 브랜드의 대표명으로 확대해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브랜드 론칭 초기에는 기존 2세대 제네시스 차량과 다음달 출시되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으로 시작한 뒤 향후 5년간 4종의 신규 모델을 추가 개발해 6종으로 고급차 라인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발하는 모델은 중형 럭셔리 세단, 대형 럭셔리 SUV, 고급 스포츠형 쿠페, 중형 럭셔리 SUV 등이다.

이들 모델 중 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차대)이 적용되는 중형 럭셔리 세단은 2017년 하반기에 출시된다. 나머지 3개 모델은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이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유는 오직 고객에게 있다"면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인간 중심의 진보'를 지향한다"고 브랜드의 방향성을 규정했다.

이런 방향성에 맞춰 제네시스 브랜드는 ▲안전·편의·커넥티비티(연결성) 기반의 사람을 향한 혁신 기술 ▲편안하고 역동적인 주행 성능 ▲동적인 우아함을 지닌 디자인 ▲간결하고 편리한 고객 경험 등 '4대 핵심 속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설명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차종마다 별도의 차명을 갖고 있는 현재의 현대차 브랜드와 달리 새로운 글로벌 차명 체계를 갖는다. 제네시스 브랜드를 상징하는 알파벳 'G'와 차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숫자'가 조합되는 방식이다.

초대형 럭셔리 세단은 제네시스 'G90', 기존 2세대 제네시스는 'G80', 2017년 하반기에 선보이는 중형 럭셔리 세단은 'G70'으로 명명한다.

앞으로 나올 중·대형 럭셔리 SUV와 고급 스포츠형 쿠페 등도 'G'와 숫자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차명을 정한다.



다만 현대차는 에쿠스의 후속 모델로 다음달 국내에 처음 출시하는 초대형 럭셔리 세단은 'EQ900'이라는 차명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존 2세대 제네시스 향후 상품성 개선 모델의 출시 시점에 맞춰 국가별, 지역별로 'G80'로 변경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보다 직접 보여줄 디자인 차별화는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인 루크 동커볼케를 전무급으로 영입했다. 아우디와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에서 디자인을 담당했던 그는 현대기아차의 디자인을 총괄하는 피터 슈라이어 사장과 호흡을 맞춘다. 루크 동커볼케는 내년 상반기에 합류한다.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현대디자인센터 안에 신설한 별도 조직인 '프레스티지디자인실'에서 전담한다.

정의선 부회장은 "현대자동차는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며 "현대자동차는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내실을 쌓아 세계 고급차 시장에서 입지를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네시스 브랜드는 온라인으로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제네시스 웹사이트(www.genesismotors.com)를 열었다. 웹사이트에는 제네시스 브랜드 가치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브랜드 영상 ▲브랜드 탄생 배경과 준비 과정 ▲브랜드 철학과 향후 계획 등이 담겨 있다.

제네시스 웹사이트에는 앞으로 론칭할 라인업의 상품 정보와 멤버십 정보가 추가될 예정이다. 고객들의 온·오프라인 통합 경험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폴크스바겐 패러독스

배출가스 조작에도 美 판매량 여전

"폴크스바겐이 환경보호청(EPA)을 속였으니 소비자들이 즉시 벌을 내리는 세상.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폴크스바겐의 10월 미국 내 판매량이 공개되자 3일(현지시간) 유력한 경제전문매체인 '더 버지'에 올라온 글이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파문에 비해 판매량 감소가 신통치 않다는 비판이다.

미국의 자동차정보제공 업체인 오토데이터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10월 한달 미국에서 3만300여 대를 팔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0.24%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판매 증가에 비해서는 초라했다. 전체 판매는 18만20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증가했다. 저유가가 계속된 결과다.

이를 두고 대부분 폴크스바겐만이 판매가 정체됐다며 신뢰 추락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BMW와 미니는 지난해 보다 6.6% 감소했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폴크스바겐은 오히려 선전한 셈이다. >>기사 5면에 계속

/송병형 기자 bhsong@

2030 담가먹고 4050 사먹는다



#. 주부 이희주(34·여)씨는 결혼 후 지난해 처음 김장을 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친정 어머니가 더이상 김장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가 김장을 시작한 이유다. 이씨는 처음에는 담근 김치를 구입할까 고민했지만 믿고 먹기 위해서는 직접 담그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

#. 쿡방 열풍으로 밥 잘먹는 남자보다 밥 잘하는 남자가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혔다. 올초 결혼한 김재훈(36)씨는 어머니께 김장 레시피를 받아 아내와 함께 첫 김장에 도전할 계획이다. 김 씨는 김장 잘하는 남자로 아내와 처가에 점수를 따겠다며 온라인을 통해 절임배추를 주문해 놓은 상태다.

#.결혼 30년차인 주부 서성희씨(53·여)는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 김장을 하지 않게 됐다. 부부 둘이 먹는데 예전처럼 거창하게 김장을 할 이유가 없어서기도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완제품을 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내 김장문화가 달라졌다. 김장철 공식이나 다름없던 '2030=완제품 김치, 4050=김장'이라는 편견이 깨지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를 중시하고 요리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손쉽게 요리하는 법에 재미를 붙인 젊은 층이 직접 김치를 담그기 시작한 반면 가족수가 줄어든 중장년층은 포장김치를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처럼 2030과 4050의 김장문화가 엇갈리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김장재료 판매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사 4면에 계속

/김성현 기자 minus@

Samsung Pay, taking a good aim at American market.

삼성페이, 美시장 정조준



Samsung Electronics takes a good aim at American market with its mobile payment system.

The company's plan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members of Samsung Pay and strive towards its universalization with extensive marketing so that they can lead the mobile payment market with America as the cent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ress and the industry on the 3rd, Samsung Electronics is featuring an event that gives free gifts to the new members of Samsung Pay.

Samsung Electronics is providing a wireless charging pad or $50 (about fifty seven thousand won) of rebate to the people who join the Samsung Pay by the 8th. This event provides gifts when the new members download Samsung Pay Application and register either credit or debit card to it.

After the launch of Samsung Pay, the company had only been providing gifts to the people who bought new mobile devices such as Galaxy Note 5 or Galaxy S6 Edge Plus.

However, the company tri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mbers who would receive the gifts by adding the people who have Galaxy S6 and Galaxy S6 Edge.

삼성전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페이로 미국 시장 정조준에 나선다.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삼성페이 가입자를 늘리고 범용성을 높여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삼성페이 가입자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벌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오는 8일까지 삼성페이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무선충전 패드나 50 달러(약 5만 7000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삼성페이 앱을 설치하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중 하나를 등록하면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출시 이후 신제품인 갤럭시노트5 또는 갤럭시S6엣지플러스를 구매한 삼성페이 사용자에게만 사은품을 증정했다.

하지만 대상을 기존의 갤럭시S6과 갤럭시S6엣지 사용자까지 확대해 사용자 확대를 노렸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휘발유 차량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게다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을 조작한 의혹이라 더욱 문제다. 이전까지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에 한정됐다.

▲ **혼다 자동차**가 향후 출시 모델에 세계 최대 에어백 업체인 타카타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이유였다.

▲ **중국과 대만**이 1949년 분단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온 양안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마저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무산되는 등 양측의 대립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치·사회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발표한 '역사 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수익보장을 미끼로 13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협의(사기 등)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7)씨와 자금 관리업체 대표 한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국사편찬위원회**(김정배 위원장)는 4일부터 닷새간 단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쓸 집필진 공모에 나선다. 시대별 대표 집필자는 학계에 명망이 높은 원로를 초빙한다.



국내 첫 돔구장'고척스카이돔' 플레이볼 4일 오후 개장 후 첫 경기가 펼쳐질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앞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고척스카이돔에서는 한국대표팀과 쿠바 대표팀의 평가전 '2015 서울 슈퍼시리즈' 경기가 열린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30대 그룹이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디딤돌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30대 그룹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D램 가격의 계속 하락이 전망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격적 투자로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 현대자동차가 폭스바겐의 아우디, 도요타의 렉서스, 닛산의 인피니티 등에 맞설 글로벌 고급브랜드로 **'제네시스'**를 공식 출범하고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고급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 올해 3·4분기까지 4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생존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비핵심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등 선박을 만드는 설비와 관계없는 부분은 떼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현대로템**의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3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엑스포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제18회 브라질 철도전시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70~80㎓ 주파수 대역에서 250㎒ 폭을 이용해 기지국 간 기가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 네이버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문화유산 확산**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41%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한미사이언스가 35위로 65계단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전선도 각각 45계단, 44계단 상승했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등 신용카드사들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등 본격적인 **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환율 보상제, 배송비 할인, 무이자할부 혜택 등 이벤트로 치열한 고객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 **대우증권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업계 인수·합병(M&A)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을 비롯해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수도권 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신도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연말에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동탄2신도시**에는 11월에 6089가구, 12월 2832가구 등 연말까지 8921가구가 공급된다.

▲ **김장 풍속도**가 달라졌다. 쿡방 열풍으로 젊은층이 직접 김장을 하는 인구가 늘어난 반면 가족수가 줄어든 중장년층은 포장김치 구입이 증가했다.

▲ **디아지오코리아**가 스코틀랜드의 전통과 한국 소비자의 취향이 어우러진 위스키 '슈퍼 프리미엄 신제품 윈저 더블유 레어'를 출시했다.

창업 5년 안 된 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中企 정책보증제도 40년 만에 손질

보증기관 투자, 10→20% 확대
신보·기보 창업지원, 23% 증액

금융당국이 지난 1970년대 초 도입한 중소기업 정책보증 제도를 4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와 투자자 범위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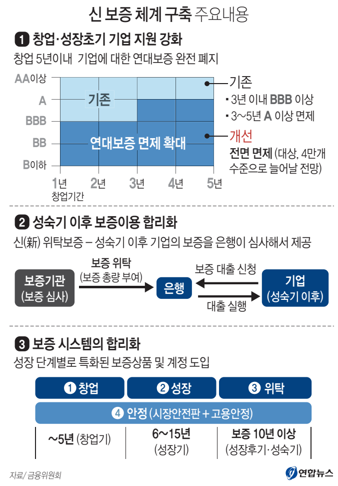
금융위원회는 기술기업과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정책 보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보증 체제 개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 후 3년내 기업 생존율은 41%에 불과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은 창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우수한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 인해 연대보증 면제 기업이 지난 9월 기준 1400개에서 앞으로 약 4만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벤처투자(VC)와 엔젤투자 등 민간 자본이 공동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보증연계 투자의 폭도 넓힌다. 보증기관의 투자 범위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투자 한도는 기존 보증액 이내로만 할 수 있던 것을 보증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대폭 늘린다.

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발굴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증



기관의 심사 인력과 조직을 '성숙기업 관리'에서 '창업·성장기업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편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창업지원 금액도 기존 14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23% 증액한다. 또 기존 1년 단위로 보증연장 여부를 심사하던 것을 5년 이상 장기 보증으로 전환, 창업 기업에는 일반보증 기준인 85% 보다 높은 90% 수준의 보증 비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을 창업, 성장, 위탁, 안정 등 단계별로 나눠 특화보증을 제공하고 계정도 이에 맞게 운용하기로 했다. 창업 5년 이내의 창업·성장초기 단계에서는 '창업보증'을, 창업 6~15년차에는 '성장보증'을, 성장보증이 일정기간 지난 성숙단계에서는 '포트폴리오 위탁보증'을 각각 도입한다.

그동안 위탁보증 제도는 기업이 보증 신청을 하면 보증기관이 심사·발급을 진행, 기업이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위탁보증 총량 내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 기업과 보증 비율을 선정하는 식으로 간소화된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 "창업·성장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눈높이에서 보증이용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보증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보증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창업·성장 초기 기업에 대한 지침과 법률 개정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성장단계별 보증 세분화와 계정 구분 등 본격적인 신(新)보증체계는 2017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집단대출 규제 강화 안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근 심사강화 현상 관련
은행이 리스크 관리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대해선 법률상 부여된 정부의 권한에 따라 시장실패를 보완한 것일 뿐 '관치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 추진과제와 금융 현안과 관련해 이처럼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에 대해 "집단대출과 관련해 규제 신설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집단대출은 은행 차원에서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적정하게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근 분양시장 호조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1~9월 중 집단대출 잔액은 3조4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이 2014년 증가액(3조1000억원)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재건축 시 이뤄지는 이주비 대출 또한 올 1~9월 중 3조4000억원 늘어 최근 몇 년 새 이주비 대출이 많았던 2012년 한 해 증가폭(1조6000억원)보다도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집단대출과 관련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대출과정과 사업성 평가 점검과 컨설팅 차원이지 검사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은행에서 나타난 집단대출 심사 강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정부도 주택시장, 분양시장, 집단대출 동향에 대해 거시경제점검회의 등 관계 기관이나 협의체를 통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조치가 관치금융의 재연 아니냐는 일부 비판에 대해선 "관치금융이란 통상 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금융사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관련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령에 따라 카드수수료 요율 산정의 틀이 짜여 있고, 산정 결과 산출한 인하 여력을 법의 정신에 따라 중소·영세가맹점에 배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 지원과 관련해서는 산은, 수은 및 시중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합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아직 가격 산정 등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매각구조와 관련해 의지를 갖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매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올 주택거래 10채 중 8채 '중소형'

주택시장, 실수요자 중심 재편
중대형比 높은 환금성도 한 몫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 거래량이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온나라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거래된 92만6425가구 중 86.28%인 79만9388가구가 중소형 아파트였다.

실수요 증가와 함께 저금리 지속으로 임대수익을 노린 중소형 아파트 매매가 활발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대형에 비해 환금성이 높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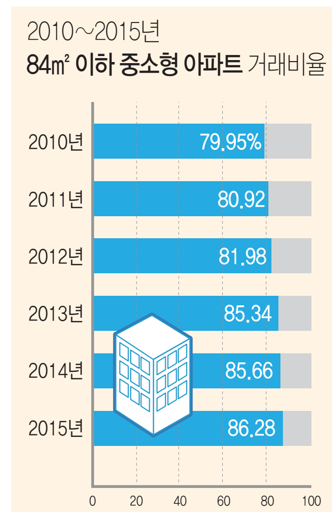
수요만큼 가격도 상승세다. 면적이 작아질수록 매매가 상승폭이 컸다. 전년 동기 대비 전용면적 40㎡ 미만 5.87%, 40~62.8㎡ 이하는 5.64% 상승했다. 62.8~95.9㎡ 미만 4.81%, 95.9~135㎡ 미만은 3.53% 올랐다. 135㎡ 이상은 2.36% 상승에 그쳤다.

분양 시장에서의 인기도 좋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평균 382대 1을 기록한 광교파크자이더테라스 전용면적 84㎡다. 지방에서는 1646대 1의 평균 경쟁률로 부산 대연파크푸르지오 54㎡가 가장 높았다.

중소형 아파트 인기에 힘입어 하반기 삼성 센트럴 아이파크,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등 중소형 중심으로 물량 공급이 이어진다.

수도권에서는 택지지구 중소형 물량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에서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지상 24~29층 11개동 전용면적 59~91㎡ 1169가구로 조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81.8%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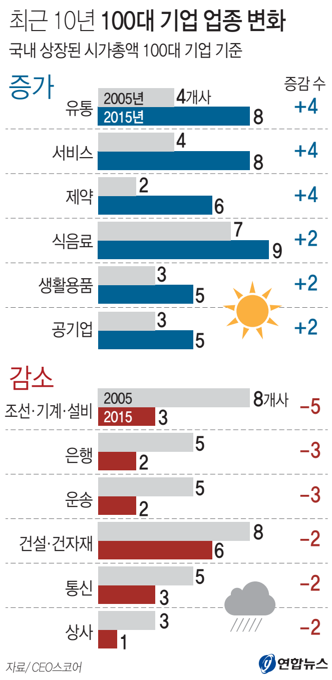
강남권 재건축도 중소형 열풍이다. 현대산업개발은 11월 서울 강남 삼성동 22번지 일원 상아3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지상 31층 4개동, 전용면적 49~170㎡ 규모 416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은 전용 49~142㎡형 93가구며 이 중 87가구가 전용면적 84㎡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11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서초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2~지상 34층 11개동 전용면적 49~150㎡ 829가구로 구성된다. 일반분양 물량(257가구)의 93%가 넘는 241가구가 전용면적 84㎡이하의 중소형이다.

지방 역시 중소형 위주의 분양이 주를 이룬다. 대우건설은 11월 전북 군산 조촌동 2 일대에 군산 디오션시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체의 97%가 선호도 높은 중소형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시총 100대 기업… 10년 흥망史 보면 한국경제 보인다

41% 물갈이… 내수 '잰걸음' 수출 '뒷걸음'



식음료·서비스·유통업 약진 신규진입 41개 중 15곳 달해

글로벌 경기침체 '직격탄' 조선·IT·기계·건설업 퇴조

최근 10년 사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시가총액(시총) 100대 기업 가운데 41%가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10년 전인 2005년 말과 비교해 시총 상위 100대 기업에 식음료·서비스·유통 등 내수 중심 41개 기업이 새로 진입한 반면 조선·기계, 건설, 정보기술(IT)·전기전자 등 그동안 수출 주력이던 중후장대(重厚長大)형 업종이 대거 밀려났다.

신규 진입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서비스, 유통, 제약으로 모두 4개사씩 늘었고 식음료, 공기업 각각 2개씩, 지주·철강은 1개 증가했다.

반면 조선·기계·설비는 5개사씩 줄었고 은행과 운송은 각각 3개씩, 건설과 건자재·통신·상사는 각각 2개씩, 자동차·부품과 증권, IT·전기전자는 각각 1개씩 모두 감소했다.

신규 진입한 41곳 중 15곳(36.6%)이 식음료·서비스·유통 업종이었고 탈락 기업 중 11곳(26.8%)이 IT·전기전자와 조선·건설 등 수출 주력 업종이었다.

100대 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식음료 기업이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유통, IT·전기전자 업종은 모두 8개사였다.

농심과 하이트진로홀딩스가 탈락한 반면 CJ제일제당, 동서, 오뚜기, 삼립식품 등 4개사가 올라왔다.

서비스 업종에서 신규 진입한 곳은 삼성SDS, SK, CJ E&M, 제일기획, 카카오 등 5개사, 유통 업종에서는 롯데쇼핑, 이마트, GS리테일, BGF리테일, 현대그린푸드, 호텔신라 등 6개사가 입성했다.

이에 반해 IT·전기전자는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 등 2개사가 탈락했고 쿠쿠전자가 신규진입에 성공했다.

이외 지주, 석유가 각각 7개사, 자동차·부품 및 건설·건자재·제약이 각각 6개, 생활용품·공기업·보험이 각각 5개, 철강·증권이 각각 4개, 통신 및 조선·기계·설비가 각각 3개, 은행, 운송이 각각 2개, 여신금융, 상사가 각각 1개사였다.

업체별로는 시총 100대 기업에 10년 연속 포함돼 있는 59개사 중 한미사이언스가 35위로 65계단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롯데케미칼과 대한전선도 각각 45계단, 44계단 상승했다.

삼성물산(4위)과 아모레퍼시픽(8위) 등 24개사가 신규 상장으로 시총 100대 기업에 새롭게 입성했다. LG생활건강(19위)과 셀트리온(27위) 등 17개사는 실적 개선에 힘입어 신규로 이름을 올렸다.

셀트리온은 10년 사이 시총 순위가 1190계단이나 폭등했고 삼립식품(460위→93위), 한샘(381위→48위) 등도 300계단 이상 뛰어올랐다. 또 바이로메드(145계단), 영풍(140계단), 메리츠종금증권(109계단) 등 4개사도 시총 순위가 100계단 이상 상승했다.

반대로 한진중공업홀딩스(옛 한진중공업)와 대우조선해양 등 27개사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막대한 손실로 주가가 하락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14개사는 상장폐지 및 합병으로 인해 빠졌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국민연금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율 12.9%로 올려야"

국민연금연구원 "보험료 부과방식 변경 필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보험료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정인영·김헌수 박사)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 지속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거둬서 쌓은 연금 기금에 기금운용으로 거둔 수익을 더해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커지지만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 보험료로 들어오는 돈보다는 연금지급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수의 증가속도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수의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오는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대로 부분 적립방식을 유지한다면 기금고갈이



불가피해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차례 올라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구팀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 기준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설정할 때, 보험료율을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팀은 나아가 보험료율을 너무 빨리 급격하게 올리면 국민연금 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는 이른바 '기금 공룡화'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은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쿡방' 열풍… 젊은층, 김장재료 주문 '클릭'

>> 1면에서 계속

G마켓 배추 판매량 13배↑ 4050세대 완제품에 눈돌려

4일 G마켓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10월26일~11월1일)동안의 김장 관련 제품 판매량을 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배추 구매가 전년 동기 대비 13배(1241%)이상 급증했다. G마켓의 배추 구매 비중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42%에서 50%로 늘었다.

배추 뿐만 아니라 김장부재료 구매 증가율도 젊은층의 증가가 뚜렷했다. 2030세대의 젓갈 구매는 68%, 소금은 151%, 마늘은 135% 늘었다. 김장비닐 구매도 2배이상(1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존에 김치를 직접 담가먹던 4050 세대는 완제품인 포장김치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다. 같은 기간 4050세대의 포장김치 구매는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2030세대의 포장김치 구매가 20%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4050 세대의 열무김치와 총각김치 완제품 구매는 전년 대비 각각 315%, 75% 증가했다. 깍두기와 석박지는 187%, 갓김치와 고들빼기 김치는 76% 늘었다.

G마켓 신선식품팀 박영근 팀장은 "워킹맘, 1인 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 몇 년간 김치 완제품을 사먹는 추세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쿡방 트렌드가 김장 담그는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실제 G마켓에서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 소금, 마늘 등을 구매하는 2030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김장철 문화가 변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김장재료를 주문해 직접 담가먹는 2030세대가 크게 늘었다. 반면 마트를 통해 김장재료를 구매해 김장준비를 하는 4050세대는 줄어드는 추세다.
/연합뉴스

온라인몰을 통한 김장 재료와 김치를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과 달리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김장 시즌(11월)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배추, 무, 갓 등의 주요 '김치 채소'의 매출이 14년과 13년에 각각 10.9%, 21.1% 감소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 같은 결과를 양식, 일식 등 다양한 식문화가 보편화돼 김치를 먹지 않고 끼니를 해결하는 수요가 늘어 김치를 중심으로 하는 한식 문화가 변화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도 김치 채소 매출감소의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온라인몰 구매를 선호하는 젊은층이 대거 김장에 나선 것도 오프라인 매출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거운 김장 재료를 직접 운반하는 번거로움 대신 절임배추를 손쉽게 집에서 받아보는 것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수요가 김장문화를 바꾼 셈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휘발유차도 CO_2 조작" VW 왜 자백했나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 3일 자인 "CO_2 배출표기 잘못 약 80만대가 대상 휘발유 엔진도 관련"



배출가스 조작스캔들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폴크스바겐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을 스스로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폭스바겐의 디젤 엔진. /AFP 연합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휘발유 차량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게다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이라 더욱 문제다. 이전까지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조작에 한정됐다.

CNN머니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의 폴크스바겐 본사는 3일(현지시간) "약 80만대 차량의 CO_2 배출가스가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차량에 표시됐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2009~2014년형 디젤차량 일부에 배출가스 조작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으로 드러나고 미국을 포함한 각국 규제 당국의 조사가 확대되자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CO_2 배출가스와 관련된 대상 차량은 폴크스바겐, 스코다, 아우디, 시트 차량의 1400cc, 1600cc, 2000cc 엔진으로 디젤차량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폴크스바겐은 "최소한 하나의 휘발유 엔진(차량)"도 관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휘발유 차량이 언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휘발유 차량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CO_2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유럽 국가들이 디젤차량 붐을 조성한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CO_2를 감축하기 위해서였다. 디젤차량이 CO_2 배출 문제에서 휘발유 차량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디젤차량의 NOx 배출 문제에 소홀했던 이유였다. 디젤차량 규제에 있어 유럽보다 엄격한 미국에서도 문제 삼은 것은 NOx였다. NOx는 온실가스와도 관련돼 있지만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으로 더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의 핫이슈인 온실가스 문제는 CO_2의 파괴력에 비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감한 CO_2 문제를 폴크스바겐이 먼저 고백하고 나서자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폴크스바겐의 2000cc 디젤차량 뿐만 아니라 아우디와 포르쉐 등 고급차량을 포함한 3000cc 디젤차량 역시 NOx 배출량 조작 프로그램을 장착하고 있다고 폴크스바겐에 통보한 바 있다. 폴크스바겐 스스로 '엎친 데 덮친' 상황을 자초한 셈이다.

일단 폴크스바겐은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마티아스 뮐러 폴크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초기부터 이번 상황을 무자비하고 완벽하게 마무리짓겠다고 다짐했다. 고통스런 과정이지만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은 결함 차량의 CO_2 배출가스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폴크스바겐은 CO_2 문제로 자신들이 안아야할 고통과 관련해 "새로운 결함 발견으로 회사가 입게 될 경제적 위험이 대략 20억 유로(약 2조49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에어백, 검사결과 조작됐다"

혼다 "타카타 제품, 사용 안해"

美서 7000만달러 벌금 부과



에어백 업체인 일본 타카타의 타카타 시게히사 최고경영자(CEO)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폭스바겐발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로 들썩이는 와중에 일본 타카타발 '에어백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자동차업계가 연일 뉴스메이커가 되고 있다.

폭스바겐이 이산화탄소(CO_2) 조작 사실을 자백한 날 일본에서는 혼다 자동차가 향후 출시 모델에 타카타 에어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사 결과를 조작해 더 이상 못 믿겠다는 이유였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타카타가 벌금 7000만 달러(약 794억원)를 물기로 했다는 발표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4일(일본시간) 혼다는 "공급자(타카타)가 에어백 팽창장치에 대해 조작된 검사 자료를 제공(했다)"며 타카타 에어백 사용 중지를 발표했다. 혼다는 타카타의 최대 고객이자 일부 지분까지 소유하고 있다. 타카타의 최대 후원자가 '불신 선언'을 한 셈이다. 그만큼 타카타 에어백 스캔들로 인한 어려움이 컸다는 이야기다. 타카타는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혼다의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물기로 한 벌금과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혼다 발표 직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에어백 결함 문제와 관련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타카타에 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타카타 역시 NHTSA의 벌금 부과 방침에 동의했다. 타카타는 향후 5년 동안 안전강화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며 NHTSA는 별도의 독립 감시기관을 통해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안전 계획에는 2018년말까지 에어백 팽창기에 쓰이는 질산암모늄 사용을 중단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타카타는 부과된 벌금을 향후 5년 동안 6번에 나누어 지불하게 된다. 만약 이행 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은 1억 3000만 달러가 추가돼 총 2억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민사 제재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의 최고액은 올 초 피아트 크라이슬러에 부과된 1억500만 달러였다.

이미 미국에서만 관련 차량 리콜이 1900만대를 넘어섰으며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병형 기자

거짓말보다 눈앞의 이익이 중요한 소비자

>> 1면에서 계속

'더 버지'는 "전세계의 정부와 로펌회사들이 폭스바겐의 돼지저금통을 흔들어 댔지만 소비자들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게 당혹스럽다"며 "소비자들이 뉴스를 보나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아마 많은 소비자들은 폭스바겐이 EPA에 거짓말한 것에 개의치 않는 것 같다"며 "새차를 5000 달러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겠냐"고 했다. EPA가 어찌됐든 소비자에게는 눈앞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더 버지'는 온 세상이 연료절약을 떠들어대도 연료 가격이 떨어지니 디젤차량 판매가 급증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스캔들로 타격을 받자 '폭탄 세일'에 나섰다. 이로 인해 '나쁜 행위는 처벌하고, 좋은 행위는 보상한다'는 미국 사회의 원칙이 제대로 먹히지 않은 셈이다. /송병형 기자

日 언론의 몽니 "DJ때 우라늄 실험"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4일 한국이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0년 극비리에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실험은 4년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사찰에 나섰지만 '단순 실험'으로 결론 지은 바 있다.

하지만 마이니치는 한국이 일본의 핵기술을 특허제도의 구멍을 이용해 가져다 군사전용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트집잡기인 셈이다.

마이니치는 오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2004년 한국 우라늄 농축시설 사찰 당시 일본에서 개발된 농축 기술의 특허에 관한 자료를 압수했다. 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장비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핵기술 공개가 제한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특허자료에 제한이 없다. 마이니치는 핵무기 개발에도 이용될 수 있는 특허를 일본이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극비 실험을 한 것마냥 묘사한 대목이다.

IAEA는 2004년 11월 26일 "관련 핵물질이 의미있는 양이 아니고 추가로 의심스러운 실험이 진행된 증거도 없다"며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축했다. 당시 결정은 IA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송병형 기자

고대사 집필진은 꾸렸지만… 근현대사는?

집필진 구성·일정 발표

신형식·최몽룡 교수 등 전체 36명으로 구성키로 초빙·공모 거쳐 2일 확정 내년 11월까지 5종 집필



4일 국사편찬위원회가 단일 역사교과서 대표 필자로 공개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왼쪽)과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두 교수는 각각 고대사와 고고학을 전공한 원로 학자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학교 현장에 배포될 중·고교 역사교과서 개발에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한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개발 방향과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발표 기자회견에 신 명예교수와 배석해 이같이 밝혔다. 애초 최 명예교수도 회견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집필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담을 느껴 불참했다.

대표 집필진은 시대사별 원로 교수 약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 명예교수는 고고학(상고사)을, 신 명예교수는 고대사 부분을 대표한다. 최성락 목포대 교수와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손승철 강원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고려·조선·근대·현대사 집필진도 언론에 거론됐지만 이날 회견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뉴라이트 성향인 강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마녀사냥이 없어질 때까지 집필진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편찬위가 "집필진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명단의 비공개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도 이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이 원칙이나 집필진 공개가 집필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최종본이 나올 때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집필진 의사와 상황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편찬위가 교과서 개발에 투명성을 강조한 터라 일부 집필진 명단이 비공개될 경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항의가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편찬위는 원로·중진 학자, 교사를 총망라하는 전체 집필진 규모를 36명 안팎으로, 4~9일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 초빙·공모를 병행한 뒤 오는 20일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들이 개발할 역사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각각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등 모두 5가지다. 집필은 내년 11월 완료 될 전망이다.

개발이 끝난 교과서는 한 달간 국편 내 시대별 전공자 각 20명 내외로 구성된 중·고교팀이 자체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영역별로 특화된 외부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 독립기념관 등 전문성이 높은 역사 연구기관의 내용 감수, 국립국어원의 표기·표현 감수를 거쳐 최종본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본은 인쇄·배포 작업을 거쳐 2017년 3월 일선 학교 현장에 배포된다. 교과서 서술 기준과 원칙을 규명한 '편찬 기준'은 현재 개발 중이며 교육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해 공개한다.

김 위원장은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편찬 기준에 의거하여 개발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집필진과 서술기준과 원칙이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이태원 살인사건' 첫 공판

패터슨-리, 피고·증인 바뀌어 재회

리 "손 씻으러 들어갔다가 패터슨이 찌르는 것 봤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 /뉴시스

1997년 이태원에서 20대 청년이 살해된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더 존 패터슨(36)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36)가 18년만에 피고인과 증인으로 입장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패터슨의 첫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리는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재판에 짧은 스포츠머리에 검은 정장, 푸른색 셔츠를 입고 별도의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조중필씨 사건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증인)신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리는 "옛썰(yes, sir)"이라고 대답하면서 패터슨을 짧게 응시했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갑자기 찌르는 걸 거울을 통해 봤다. 조씨가 저항을 하려고 오른손으로 패터슨을 때리려고 했는데 패터슨은 계속해서 찔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사가 "본인이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죽어가는데 왜 경찰이나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리는 "그 당시 패터슨은 친구였고 충격으로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다. 다음 날 수사당국에 신고된 걸 알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리는 "당시 리가 마약에 취해 환각상태에서 조중필씨를 찌른 것"이라는 패터슨의 주장에 대해 "난 마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패터슨의 공소사실을 밝히며 "당시 18세 미만 소년범이었지만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에 따라 패터슨의 법정형은 유기징역 20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패터슨 측은 검찰이 파악한 사건당시 상황 중 일부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과 법원이 패터슨의 말을 잘못 오역해 진범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무죄라고 했다.

/연미란 기자

국정화 후폭풍…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공회전

원내대표 회동 거부 등 野, 전면 보이콧 선언 '반쪽 소위' 구성 우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의 여파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여파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틀째 공전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를 비롯한 비경제부처를 상대로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종 불참 의사를 전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예정됐던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연기됐다. 반면 국정화 확정 고시로 한숨 돌린 새누리당은 민생경제에 방점을 두고 정책모드로 선회를 시도, 야당을 압박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부할 방침인데 이어 5일 본회의 소집도 보이콧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12.2)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졸속 심사가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종료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 자체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날이 예결위 파행 운영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선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불참이 계속될 경우 단독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태여서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예비비 편성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두고도 갈등 중이다. 야당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들어 예결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결위가 공회전만 거듭하면서 5일까지 마칠 예정이던 소위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소위 규모는 여야 의원을 합쳐 최대 15명으로 정해질 전망이지만, 야당이 예결위 의사 진행에 응하지 않고 있어 소위에 들어갈 의원 명단조차 정해지지 않아 자칫 여당만 참여하는 '반쪽 소위' 상태로 출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미란 기자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은행부문 12년 연속1위

자산관리부터 은퇴 후 인생까지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서비스로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세요"

국민의 은퇴·노후준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노후설계 시스템
재무계획 및 비재무적 이슈까지
점검하여 노후설계

은퇴·노후설계 상담창구
KB국민은행 전국 850여개 영업점 VIP라운지에서
설계·상담 서비스 제공

행복노후설계 프로그램
행복노후설계 세미나 등
전문가의 은퇴·노후 준비
노하우 전수

다양한 은퇴 전용 상품
미래를 위한 『KB골든라이프
연금우대 통장/적금/예금』부터
각종 연금저축·보험상품까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 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흔들리는 반도체값… 삼성·SK "그래도 투자"

D램 가격, 한달새 10%↓… 낸드플래시도 내림세 이어져
해당 기업들 "설비 증설로 생산성 향상… 위기 극복 노력"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바닥 모르게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1년 동안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격적 투자로 치열해지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4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D램 대표 제품 DDR3 4GB 모듈 평균 계약가격은 16.75 달러로, 전달(18.5 달러) 대비 9.5% 하락했다.

DDR3 4GB 가격은 올해 들어 29.5 달러에서 16.75 달러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내년 중반까지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D램익스체인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한 내년 중반까지도 D램 가격 하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PC와 태블릿PC 시장의 정체, 스마트폰 시장의 느린 성장 등으로 D램의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 세계 PC 시장 규모가 전년비 7% 이상 줄어든 2억89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블릿PC는 역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연평균 2%의 역성장이 예상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지만 성장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낸드플래시 역시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64Gb 8Gx8 MLC 낸드플래시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2.19 달러로 보름 전과 비교해 2.67% 감소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8.2% 급락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인텔이 중국 공장을 메모리 생산기지로 전환하고,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낸드플래시 제조업체인 샌디스크를 우회 인수하는 등 시장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설비 증설로 생산성을 높이고 하이엔드(고사양) 제품 위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를 위해 17라인의 웨이퍼 생산량을 월 4만장에서 5만장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어떤 제조사도 시도하지 못한 14나노미터(nm) 미세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생산을 이르면 내년 초에 시작할 계획이다. 반도체 미세공정은 나노미터의 수가 낮을수록 선진화된 생산방식이다.

SK하이닉스도 M14 팹(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생산량을 1만5000장에서 7만장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3세대인 트리플레벨셀(TLC) 기반 48단 낸드플래시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SSD 시장에 진출하는 등 고부가 제품의 비중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재편 움직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D램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4·4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의 수익성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삼성그룹 "조기 인사 없다… 예년처럼 12월에"

삼성그룹이 올해 연말 정기인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2월 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은 4일 삼성사장단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예년과 바뀌었다는 얘기는 전해듣지 못했다"면서 "예년 대로 12월 초에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일각에서 조기 단행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은 매년 12월 첫째주 사장단 인사를 시작으로 임원 인사를 단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거시경제 상황 불안과 계열사 내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 체제 조기 안착 등의 이유로 인사 시즌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으나 이날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한 것이다.

한편 이날 삼성 사장단은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부터 '중국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정 교수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는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정책의 일환일 뿐, 일부 전문가의 의견과 달리 과잉 투자나 소득 격차 악화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경제성장 비결로는 '실험주의'와 '혁신'을 꼽았다. 중국은 성-지구-현-향-진 등으로 이어지는 행정단위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국장급인 현 책임자가 전국에 2800여명 정도 되는데, 현 책임자에게 큰 재량권이 있어 새로운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태동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알리페이나 알리바바의 혁신이 가능했던 것도 실험을 무한대로 해 볼 수 있는 경제 운영 시스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미 기자

삼성·현대차·SK 등 '고용디딤돌' 사업 본격화

자체 훈련시설서 교육
오늘부터 모집신청 가능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30대 그룹이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고용디딤돌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오전 서울 가든호텔에서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 인사담당 최고책임자(CHO)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삼성, 현대차, SK그룹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고용디딤돌사업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5일부터 모집을 시작하기로 했다.

고용디딤돌이란 대기업이 우수한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접 교육하고 채용도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취업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다.

SK는 내년 한 해 동안 총 2000명의 청년구직자를 뽑아 직업훈련과 인턴십을 진행한다. 훈련분야는 IT, 통신, 반도체, 에너지 등이다. 5일부터 18일까지 SK 고용디딤돌 사이트를 통해 신청 받는다.

삼성은 연간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전자·전기, 설비 등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0일부터 29일까지 고용부 HRD-Net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대차는 내달 8일부터 21일까지 800명을 뽑아 자동차 부품 산업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과 인터십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대기업이 보증한 협력사 또는 관련기업에 취업할 수 있고, 3년 이상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면 대기업 채용 시 우대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대기업이 직접 수료생을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30대 그룹 가운데 청년고용디딤돌사업 참여를 확정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은 LG, 롯데, KT, 두산, GS, 현대중공업, 동부, 카카오, 한국전력 등 12개사다. 포스코, 한진 등 4~5개사는 정부와 아직 협의 중이다.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중부발전, 남동발전, 마사회, JDC, 석유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공기관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우리 아들, 딸들이 꿈을 가진 대들보가 되느냐 아니면 모든 꿈을 저버린 달관세대가 되느냐 여부는 1~2년 내 고용사정에 달려 있다"며 "노동시장개혁 완성에 대한 확신 하에 청년들의 직접고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獨 소비자 연맹 평가 1위

삼성전자는 독일 소비자연맹인 스티바(StiWa)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테스트'지 11월호에서 실시한 드럼세탁기 성능 평가에서 총 11개 브랜드의 드럼세탁기 중 삼성 제품이 1위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테스트지의 드럼세탁기 평가에서 '밀레'와 '지멘스' 등 독일 브랜드가 아닌 타사 제품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평가에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는 내구성과 누수 안전성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또 ▲세탁·헹굼·탈수·세탁시간 등을 평가하는 기본 성능 항목 ▲에너지 효율·물 소비량·소음을 평가하는 친환경성 항목 ▲편의기능 등을 평가하는 사용성 항목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으며 종합적으로 단독 1위에 선정됐다. /정은미 기자



평가 1위로 선정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WF76F7E6P4W). /삼성전자

LG전자, 美에 '트윈워시' 선보여

<드럼세탁기>

LG전자가 미국에서 트윈워시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달부터 베스트바이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홈디포, 로스 등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에서 트윈워시 판매를 확대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트윈워시는 출시 전부터 미국 유통 업체들로부터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다. LG전자가 트윈워시를 판매하게 될 매장은 기존 900달러 이상 프리미엄급 세탁기가 팔리는 매장보다 2배 이상 많을 정도다.

최근에는 트윈워시를 신속하게 배송해 달라는 미국 유통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편을 이용하기도 했다. LG전자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세탁기를 항공편으로 공급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LG전자는 트윈워시 출시로 미국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4분기에는 9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드럼세탁기 시장에서 33.6%의 점유율을 기록해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가 3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분리세탁 등 트윈워시의 장점을 퍼포먼스로 연출한 출시행사를 가졌다. /LG전자

사옥서 골프장까지… 대우조선, 팔건 다판다

부장급 이상 300여명 권고사직 등 대규모 인원 감축
美 풍력발전사 '드윈드' 등 해외자회사도 매각수순



서울 중구 대우조선해양 본사. /연합뉴스

올해 3·4분기까지 4조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한 대우조선해양이 생존을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대우조선해양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비핵심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는 등 선박을 만드는 설비와 관계없는 부분은 떼내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중구 다동 본사 사옥도 매각할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본사 사옥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운용을 선정했다. 매각 가격은 18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실시한 비공개 매각 입찰에는 미래에셋운용을 비롯해 키움투자자산운용, 코람코자산신탁 등이 참여했다. 대우조선 본사 사옥은 지하 5층, 지상 17층에 연면적 2만4854㎡ 규모로 지난 1986년 준공됐다.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결정했고 대우조선은 강도높은 자구계획을 실행해 1조8500억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본사 사옥을 매각하는 것도 이러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대우조선은 본사 사옥과 함께 당산동 사옥, 골프장 써닝포인트CC를 운영하는 자회사 에프엘씨 등 비핵심자산을 전량 매각해 총 7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산엔진과 화인베스틸 등의 보유주식은 이미 처분한 상태다. 마곡산업단지에 조성하려던 연구개발(R&D) 센터의 건립 계획은 취소했고 조만간 부지 매각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인적쇄신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의 개선, 직접경비와 자재비 절감, 공정준수를 통한 지연배상금 축소 등의 활동으로 1조1000억원 이상의 손익 개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의 대표적 해외 부실 자회사인 미국 풍력발전 업체 드윈드와 루마니아 망갈리아 조선소, DSME오만 등과 대우조선해양건설, DK마린 등 국내 자회사도 매각과 청산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정리해 부실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다만 드윈드의 경우 최근 저유가와 맞물리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이 축소됐고 망갈리아 조선소는 세계 조선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인력 조정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현직 임원 6명과 비상근 고문 4명을 포함해 본사와 계열사의 부사장과 전무, 고문 등 임원 총 23명은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퇴직했다.

최근에는 부장급 이상 일반직 300여명에 대한 권고사직 등의 인력 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1만3000명에 이르는 직영 인력 가운데 3000명 가량을 줄여 1만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중남미 도전합니다"

'브라질 철도전시회' 참가
현지 철도시장 본격 공략


브라질 상파울루 엑스포 제1전시장에 마련된 현대로템 전시관 모습.

현대로템의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3일부터 브라질 상파울로 엑스포 제1전시장에서 개막한 '제18회 브라질 철도전시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현대로템은 오는 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브라질에 철도차량 생산공장을 보유한 지역 친화적 기업임에 초점을 맞춰 현지 전략 차종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브라질에서 수주한 사업인 살바도르 2호선 무인운전 전동차 및 CPTM 교외선 전동차와 함께 현지시장 전략 차종인 ITX-청춘 등 다양한 제품 모형을 전시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4월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에 부지 면적 13만9000㎡(4만2000여평), 연간 생산량 200량 규모의 브라질 현지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현대로템 브라질 공장은 터키, 미국에 이은 세번째 해외 현지 공장이다. 특히 현대로템은 브라질 공장 건설을 통해 총 계약가 중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 또는 제작해야 하는 브라질 공공조달법을 충족, 현지화와 함께 현지 시장 공략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시회를 방문한 중남미 국가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브라질에 현지 생산공장을 갖춘 기업임을 알리는 동시에 전장품, 제동장치, 에어컨 등 차량 주요 장치의 실질적 기술이전을 통해 브라질 철도산업에 기여하는 현지화된 철도차량 제작 업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전시장 내 별도의 회의공간을 마련해 상파울로주 교통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및 메트로 바히아, CPTM 등 현지 시행청 인사들과도 적극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 및 중남미 시 행정과의 우호 관계 증진에 힘써 시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현지화 기업임을 알릴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LGD '현장소통' 강화

협력사서 직접 애로 해결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4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한상범 사장은 지난 7월 올레드(OLED) 대형 공정라인 자동화 관련 2차 협력사인 오성디스플레이를 방문한 데 이어 구매그룹장 김동수 전무가 이날 대화메탈주식회사를 방문해 협력사 생산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방문은 LG디스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반성장 활동이 2차 협력사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협력사의 애로사항을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대화메탈주식회사 방문에는 1차 협력사인 희성전자를 비롯해 인근의 협력사들도 동행해 올레드 부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캄보디아의 희망' 아시아나가 키운다

아이들 꿈 지원위해
행복학교 후원 약속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썸라옹톰 초등학교'에서 '행복학교' 후원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캄보디아-행복학교' 프로젝트는 아시아나항공과 세계교육문화원(WECA)이 올해 5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해온 글로벌 교육 지원사업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프놈펜의 학교 한 곳을 선정해 현지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통학으로 식사를 거르는 '썸라옹톰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매주 간식을 제공하고 교육용 도서 600권, 책가방 550개, 학습용 컴퓨터 10대 등 학용품과 교육 기자재를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이 3일과 4일 양일간 직접 현지를 방문해 벽화 그리기 등의 교내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 및 교직원들과 함께 하는 미니운동회도 진행했다.

썸라옹톰 초등학교 레악 쓰레이삐 학생은 "아시아나항공의 지원으로 깔끔해진 학교 건물과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받게 돼 기쁘다"며 "새 책가방과 학용품으로 열심히 공부해 장차 한국 기업에서 근무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2년부터 '아름다운 교실'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베트남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후원하고 있다. 필리핀 클라크필드 인근 아이따족 필리안 마을에서의 임직원 봉사활동, 태국 방콕 중등학교에 대한 한국어 도서와 도서관 시설 지원 등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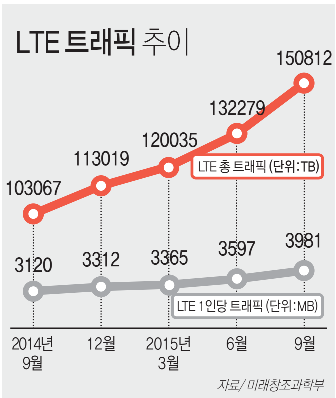
/양성운 기자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이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에 위치한 '썸라옹톰 초등학교'에서 '행복학교' 후원을 위한 서명식을 갖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봉사단과 썸라옹톰 초등학교 교직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모바일로 영상 보기, 돈 되네"

"데이터가 효자" 이동통신사 '웃음꽃'

LTE 가입자 4000만 맞아 사용량 늘자 매출도 상승



우리나라의 롱텀에볼루션(LTE) 이동통신 가입자가 40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LTE 가입자 3000만명을 넘어선 지 1년 7개월 만이다. LTE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LTE 데이터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LTE 이동통신 가입자는 4031만176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842만2223명의 69%에 달하는 수치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LTE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3·4분기 기준으로 자사 가입자의 81%에 달하는 953만명이 LTE를 쓰고 있다. KT의 경우 69.3%에 달하는 1233만명이 LTE 가입자다. SK텔레콤의 LTE 가입자 비율은 64.8%로 1846만5000명에 달한다.

반면 3·4분기 가입자 1인당 평균 매출(ARPU)은 LG유플러스가 3만629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전 분기보다 0.9% 줄어들었다.



KT는 3만6193원으로 전 분기보다 0.4% 늘었지만, 2·4분기 당시 1.4%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폭이 줄었다. SK텔레콤의 경우 3만6729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0.9%, 직전 분기 대비 0.3%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상황이 비관적이지만은 않다.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조만간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데이터 매출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LTE 데이터 트래픽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9월 LTE 데이터 사용량은 15만2338테라바이트(TB)로 지난해 9월 10만3067TB와 비교해도 1년 만에 50% 가까이 늘어났다. LTE 가입자 1명당 사용량도 3981메가바이트(MB)에 달한다.

KB투자증권의 정승규 연구원은 "LTE 가입자와 데이터 트래픽이 증가했지만, 요금제 개편과 20% 요금할인 확대가 ARPU 상승을 저해했다"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가 1000만명이 넘어서고 모바일 스트리밍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ARPU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일반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 증가가 통신사의 실적을 견인할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의 원인으로 저용량 동영상 스트리밍 증가를 꼽는다.

최근 소비자들의 자투리 시간을 공략하고 있는 TV캐스트는 영화와 달리 짧은 분량의 동영상이 주를 이룬다. 포털전용 예능 프로인 '신서유기'와 같은 TV캐스트의 분량은 회당 약 10분 정도로, 동영상 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200MB(HD급 기준) 정도다.

소비자들은 저용량 동영상 시청에 따른 데이터 소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같은 트렌드를 타고 대표적인 TV캐스트 '신서유기'의 경우 회당 170만회가 재생됐다.

유진투자증권의 김준섭 연구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선호되고 있다"며 "모바일 네트워크를 이용한 데이터 소비가 많으면 이동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 향상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동반성장 활동 성과 결실 맺는다

SK주식회사 C&C
드림비전스, 납품 계약 체결 오픈잇 '헬스케어 서비스' 론칭

SK주식회사 C&C가 이끄는 공동협력 기반 동반성장 프로그램 '협력사 비즈아이디어페스티벌' 수상 사업들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4일 SK주식회사 C&C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드림비전스사의 '스마트 케어·관제솔루션'은 블루투스 저전력(BLE)모듈을 이용한 환경센서 제품을 개발해 올해 9월 스마트홈 구축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올 연말 한국전파진흥원의 연구개발(R&D)지원 사업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게이트웨이 및 센서 AP 제품을 개발 중이다.

같은 해 '블루투스 저전력 기반의 국제 표준(GATT표준) 방식을 이용한 의료기기 무선 모듈 개발' 사업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픈잇사도 지난달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헬스업 v.4.0'을 론칭했다. 이 제품은 표준기반 개인의료기기, 웨어러블기기 50여 종을 지원한다. 연내 관련 의료기기 및 통신모듈 유통사업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목적 IoT 패턴 활용형 실시간 영상 기반 표준산업재해방지 서비스'로 우수상을 수상한 유비테크는 와이파이 기반 사운드 송출기 핵심 기술을 구현해 시제품을 제작 중이다.

2015년 수상 사업들도 구체적인 사업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대상을 받은 판게아솔루션의 '장거리 LoRa IoT 디바이스'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코아칩스의 '무전원센서 기반 IoT 관제서비스 개발' 사업 등은 현재 SK주식회사 C&C와 함께 SK그룹 관계사의 산업 현장 인력들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정문경 기자

올랑드 대통령이 네이버와 손잡은 까닭은

네이버·佛, 업무협약 체결 문화 확산·스타트업 육성

네이버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프랑스 정부와 프랑스 문화유산 확산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민간 창업 지원 기관인 디캠프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플레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내년으로 예정된 '프랑스의 해' 행사를 포함해 프랑스의 문화, 언어, 관광 등의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 서비스 네이버TV캐스트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 뮤직이나 N스토어 등 여러 플랫폼을 활용해 프랑스 뮤지션과 아티스트, 영화, TV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4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디캠프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가운데)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헌 네이버 대표(우측)와 플레르 펠르랭 프랑스 문화통신부 장관(좌측)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네이버

아울러 네이버와 프랑스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확산을 위해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가 문화유산의 디지털화 작업 노하우를 전달하고, 국가 및 세계 문화재를 디지털화해 보존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의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서도 손을 맞잡았다. 네이버는 프랑스 스타트업들이 네이버가 운영하는 D2 스타트업 팩토리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프랑스 내 스타트업 관련 행사 주최 및 멘토링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여러 해 동안 의미있게 이어져 온 한불 수교가 IT 분야에서도 빛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KT '올레 투폰' 4개월 만에 10만명 돌파

KT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복수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 '올레 투폰'이 서비스 출시 4개월만에 가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올레 투폰 서비스에 가입하면 스마트폰 1대에 2개의 전화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그리고 번호 별로 각기 다른 스마트폰 바탕화면(P모드와 B모드)이 부여된다. 각 모드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주소록, 사진첩, 앱 등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2대씩 들고 다니거나 이중으로 통신요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문경 기자

LGU+, 노키아와 '5G 시험기지국' 내년 구축

LG유플러스는 노키아와 함께 70~80㎓ 주파수 대역에서 250㎒ 폭을 이용해 기지국 간 기가급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초고속 데이터 전송은 지연 시간이 1000분의 1초에 불과해 5세대(5G) 통신 서비스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무인 자동차, 증강 현실(AR) 등에 적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와 노키아는 60㎓ 이상의 고주파수 대역에서 5G 기술을 시험하는 기지국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고객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5G 조기 도입을 위해 밀리미터웨이브,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위해 해외 장비업체와의 기술 개발 및 서비스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27일 '블랙프라이데이'… 30일 '사이버 먼데이'…

카드사 "2조원 시장, 해외직구族 잡아라"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환율보상제·상시할인… '맞춤형 구매' 행사 줄줄이

요즘 신용카드사의 최대 과제는 '국내 직구족의 명절'로 불리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특수 경쟁 선점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11월 27일이다. 이어 그 다음주 월요일인 11월 30일은 온라인 위주로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가는 사이버 먼데이다.

이 기간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은 최대 80~90% 할인 판매에 나선다. 이런 할인 행사는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진다. 국내 직구족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살 기회다.

◆해외 직구 수입액 3년새 3배 증가

4일 카드업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해외직구 수입 총액은 지난 2011년 3억3197만 달러에서 2013년 7억932만달러로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9억7519만 달러(1조1639억원)로 증가하는 등 지난 3년 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해외직구 수입 총액은 7월 말 현재 4억7655만 달러를 기록,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직구 시장이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각 카드사는 이들 고객을 잡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만큼 해외직구 결제 분야에서 탈출구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다.

카드사들은 배송비 할인, 포인트 적립, 추가 할인 등의 혜택을 앞다퉈 제시하며 고객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반적인 소비 규모는 40대>30대>50대 순이지만 직구는 30대가 중심인 만큼 미래의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라는 의미도 있다.

◆카드사 "직구族 잡아라"

KB국민카드는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본격적인 해외 직구 시즌을 앞두고 환율 보상제, 배송비 할인,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먼저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환율 보상제는 기준 환율을 1100원으로 잡고, 전표 매입 시점에 환율이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캐시백 해주고 미만이면 실제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달 말까지 미화 100 달러 이상을 해외 직구하면 최대 500 달러까지 환율 보상제를 적용한다.

국민카드는 사용하는 쇼핑몰에 따라 선착순으로 최대 10~20 달러의 배송료도 할인해 준다.

또 연말까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환산금액 기준으로 건당 20만원 이상 결제하고 국민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하면 일시불 사용 건을 2~3개월 무이자로 전환해 준다.

신한카드는 생활서비스사이트인 '올댓서비스' 내에 '해외직구서비스'(올댓직구)를 오픈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올댓직구는 1년 내내 해외직구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카드는 해외직구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카드 해외직구몰'을 개설했다. 해당 쇼핑몰에서 우리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상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삼성카드의 '글로벌쇼핑 삼성카드5 V2'는 해외직구 시 포인트 적립, 국제브랜드수수료 면제 등 최대 3%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NH농협카드의 '글로벌 언리미티드(Global Unlimited) 체크카드'는 국외 모든 가맹점에서 한도와 횟수에 제한 없이 이용액의 2%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하나카드의 '비바(VIVA) G 플래티늄 체크카드'는 해외가맹점 결제금액의 5%(건당 최대 5000원)를 청구 할인해 준다.

여기에 0.5% 수수료 면제를 더할 경우 해외이용금액의 약 2%를 절감할 수 있다. 롯데카드의 '올마이쇼핑'카드는 할인사항 중 해외이용금액을 택할 경우 해외직구 이용금액에 대해 10% 할인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여행객의 카드 사용액 성장세는 연 10% 미만이지만 해외직구는 30%를 넘고 오는 2018년에 규모가 8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해외직구 고객 확보를 위한 카드사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외국 쇼핑몰을 통한 직접구매(해외직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기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열었다.

이 사이트는 해외직구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국의 아마존·이베이, 중국의 타오바오, 일본의 라쿠텐을 포함한 주요 사이트들의 주문취소 방법과 환급 정보를 제공한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은행 대출서류, 내년 4월부터 절반 축소

20여개 중 9개 통폐합 서명도 일괄서명 대처 '덧쓰기' 30자서 7자로

<금융거래 대출서류 간소화 세부 내용>

구분	서류 목록	개선 방안
여신	① 대출상품 안내서 ② 확인서(COFIX 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 변경용) ③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④ 부채현황표 ⑤ 위임장(타행대환용) ⑥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⑦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⑧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①~⑦서류 폐지 ⑧서류는 상품설명서에 통합
여수신 공통	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설명서 등 다른 서류에 통합

자료:금감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은행 거래에 필요한 서류 양이 대폭 줄어든다. 은행 거래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자필쓰기도 최소화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은행연합회와 함께 소비자가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방안을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는 은행거래 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아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우선 주택담보대출 시 작성해야 할 서류를 20개에서 11개로 줄였다.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유지하되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9개 서류는 폐지하거나 통폐합한다.

여신의 경우 대출상품 안내서, 확인서(코픽스 연동금리대출 신규·조건 변경용),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용), 여신거래종류 분류는 폐지하고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에 통합한다.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설명서 등 다른 서류와 통합한다.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도 간소화된다.

새로 거래를 시작했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중요할 경우 개별서명을 유지하지만, 단순 통지 신청이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정보 통지서비스 신청 서명, 금융거래목적 확인 서명 등 여·수신 각각 4종, 5종의 자필서명 대상이 해당란에 일괄 체크표시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 금융거래 내용에 대해 이해했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자필로 쓰도록 하는 '덧쓰기'도 총 30자에서 7자로 줄인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고 15자 덧쓰기는 폐지된다.

은행이 이미 보유 중인 고객의 성명, 자택주소, 연락처 등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 인쇄하도록 해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 전산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 조치로 은행 거래 시 가입절차가 간소화되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DGB생명, 대구 동인·발월당 2개 지점 신설

DGB생명은 4일 대구 동인·반월당 2개 지점을 개설했다. 이날 개점식에는 DGB생명 제갈상규 감사, DGB금융지주 홍진기 상무, DGB생명 대구경북지역단 허강철 단장, DGB생명 이동주 반월당지점장, DGB생명 오익환 사장, 대구 중구청 이국진 생활지원과장, DGB생명 김재희 동인지점장, DGB생명 김종국 부사장(왼쪽부터)이 참석했다. /DGB생명

"4분기 수출 전년比 9% 하락 전망"

수출입은행

"연말 성수기 영향 등에 하락세 다소 완화될 것"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4·4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안팎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은 4일 발표한 '2015년 3·4분기 수출 실적 평가와 4·4분기 전망'을 통해 향후 수출경기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출선행지수가 전기 대비 증가하는 등 수출 경기 하락세가 진정돼 4·4분기 수출증가율은 전기(△9.5%)와 유사한 △9% 내외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선행지수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원자재 수입액, 산업별 수주 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은은 미국·중국 등 주요수출국의 경기회복력은 크지 않지만,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유지되고 있고, 수출에 선행하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 연말 성수기 영향 등으로 수출 하락세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현대·LIG證 등 노른자들 '주인찾기' 한창

대우증권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증권업계 인수·합병(M&A)시장도 꿈틀대고 있다.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을 비롯해 LIG투자증권, 리딩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의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 M&A에 길을 묻다 ③ 다시 불붙는 증권가 M&A

매각 무산된 현대증권 재매각 추진시기 조율

LIG투자·리딩투자證 등 중소형사도 M&A시장에

◆현대증권 등 주인찾기 재도전

대우증권 외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현대증권이다.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 매각시기는 빨라야 내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대증권 재매각 추진 시기를 놓고 그룹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오릭스PE에 이어 차순위 협상자였던 국내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와의 협상 가능성도 흘러 나온다.

그러나 걸림돌이 적잖다. 매각이 휘둘리는 동안 현대증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는 윤경은 사장의 퇴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현대증권 재매각을 추진 중인 현대그룹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LIG투자증권 매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로써 LIG그룹 인수전은 JB금융지주, 희성그룹, 케이프인베스트먼트의 3파전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LIG투자증권의 대주주인 KB손해보험은 11월 중 본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LIG투자증권 지분 매각 대상은 KB손해보험이 보유한 지분 82.36%다. 시장이 예상하는 매각가격은 1500억원 안팎이다.

리딩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주요증권사 M&A현황>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회사명	시기	형태
농협	세종증권	NH투자증권	2006.01	인수
유진그룹	서울증권	유진투자증권	2007.03	인수
국민은행	한누리투자증권	KB투자증권	2007.11	인수
두산캐피탈	비엔지증권	비엔지증권	2008.01	인수
현대자동차그룹	신흥증권	HMC투자증권	2008.02	인수
현대중공업그룹	CJ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2008.07	인수
하나대투증권	하나IB증권	하나대투증권	2008.11	흡수합병
한화증권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2012.09	흡수합병
유안타금융그룹	동양증권	유안타증권	2014.06	인수
NH농협증권	우리투자증권	NH투자증권	2014.12	흡수합병
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2015.05	흡수합병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들도 매물로 나왔다. 산은자산운용과 칸서스자산운용 두 곳이다. 산은자산운용은 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매각방침에 따라 지난 8일 공식적인 매각작업이 시작됐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최대주주 한일시멘트는 물론이고 군인공제회·KDB생명 등 재무적투자자(FI)와 우리사주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 전량(100%) 매각을 위해 최근 매각주간사로 딜로이트안진을 선정했다.

최근 매각이 무산된 현대자산운용도 잠재매물로 꼽힌다. 사모펀드 오릭스가 현대증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증권의 100%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도 다시 매각대상이 된 것이다. 지방 금융지주사와 중국계 자본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커자산운용(현 JB자산운용)을 인수한 JB금융지주가 현대자산운용 인수를 검토하는 등 지방 금융지주사의 자산운용사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자본시장 M&A 활발해질 듯

'시들어 버린 꽃'. 부끄러운 증권산업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다.

시장에서는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새판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해법으로 M&A와 같은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유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과거 증권사의 M&A는 대부분 기업이 증권산업 진출을 위해 소형 증권사를 인수하는 전략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증권사 간 흡수합병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전략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유상증자와 M&A를 통해 자기자본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증권사의 재편과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특화된 전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증권사 M&A는 가격만 맞으면 언제든지 '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증권사 M&A의 가장 걸림돌은 내실에 비해 비싼 '몸값'이라고 지적한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와 기업이 가진 유동성을 보면 전세계적으로 올해와 내년은 M&A를 시도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면서 "창조경제의 발전적 차원에서도 M&A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유안타증권은 연말까지 '미니KOSPI200 선물·옵션 매매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 /유안타증권

'미니 KOSPI200' 선물·옵션 수수료 무료

유안타증권, 연말까지 시행

유안타증권은 4일부터 올해 말까지 '미니KOSPI200 선물·옵션 매매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미니KOSPI200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니KOSPI200 선물·옵션 상품의 거래수수료와 청산결제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2개월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유안타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동참하고자 같은 기간 동안 미니KOSPI200 선물·옵션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특히 최근 발표된 '회원이동 자율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강화 방안'에 따라 기존 거래 증권사에서 적용되던 기본 예탁금이 증권사 이동 후에도 그대로 적용돼 유안타증권에서 신규로 거래하는 고객도 기본 예탁금 증가 부담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성철 리테일(Retail)전략팀장은 "미니KOSPI200 시장은 기존 코스피200 선물·옵션보다 거래규모가 작아 개인투자자의 시장 참여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며 "차익 및 헤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미니KOSPI200 시장에 투자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보고 듣는' 자산배분 전략 보고서 나왔다

KB투자證 '포투나' 발간 방향성·상대 비중 초점



KB투자증권은 리서치센터의 역량을 총 집결한 자산배분전략 보고서 '포투나(FORTUNA)'를 첫 발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고착된 '저성장과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적정 투자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분산투자 즉, 자산배분 전략이 필요해졌다.

KB투자증권의 자산배분전략 보고서 '포투나(FORTUNA·행운과 부의 여신을 뜻하는 라틴어)는 투자자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구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착안해 만들었다.

특정시점의 자산배분 비중을 추천하기보다는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자산배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자산배분의 방향성과 상대 비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해 위험회피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위험선호형의 5가지 자산배분모형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험중립형 기준으로 올해 4·4분기 전망은 금리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채권을 포트폴리오 비중의 50%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 현금 등 4개의 자산군에 대한 KB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견해를 요약해 보여주며, KB투자증권이 추천하는 유형별 상품리스트도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다.

한편 KB투자증권은 자산배분전략 보고서를 자산관리 앱 'KB WM CAST'를 통해서도 동시에 제공한다. KB WM CAST는 자산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정보들을 5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KB투자증권은 자산배분전략 보고서 발간에 맞춰 KB WM CAST를 통해서도 총 15편에 걸쳐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김문호 기자

메리츠종금證, 3분기 영업익 939억… 1년새 130% ↑

메리츠종금증권은 3·4분기 순이익이 7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1%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939억원으로 130%나 늘었다.

1~9월 3·4분기 누적 순이익은 2293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누계 942억원에 비해 2.4배 수준이다.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은 1조6841억원으로 연환산 세후 자기자본수익률(ROE)은 24.4%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이익증가세로 안정성 비율지표인 레버리지비율과 순자본비율(NCR)은 9월 말 현재 626.5%와 573.9%를 각각 나타냈다. 지난 6월 말 레버리지비율과 NCR이 각각 746.9%와 420.4%였던 점을 감안하면 3개월새 레버리지비율은 120.4%포인트, NCR은 153.5%포인트나 개선됐다.

/김문호 기자

정부3.0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할 때 까지

당신의 아들딸이 되는 효나누미

"내 나이에 아들 딸이 생겼습니다"

"정성을 다해 내 마음까지 잘 헤아려주니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하기 힘든 일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치매노인장기요양 서비스까지 있으니 참 힘이 되네요"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신의 아들 딸이 됩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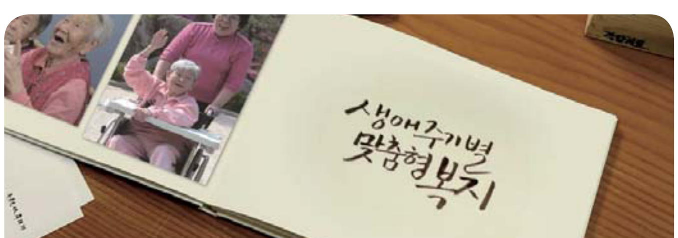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 도서 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 시설급여 서비스

급여이용 본인부담

- **일반대상자** : 시설20%, 재가 15%(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50%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동탄2 노려볼까”… 연말까지 8900가구 푼다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완공 앞두고 분양 몰려

싼 집값+웃돈 효과에 일부 단지 관심 늘어

#1. 강남에 회사를 둔 회사원 정모씨(38·남)는 지난해 동탄2신도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인근 공공분양 아파트 한채를 분양 받았다. 인근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1억원 가까이 저렴한 데다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웃돈이 3000만원이나 붙어 연일 싱글벙글이다.

#2. 경기도 오산에 살고있는 주부 이모씨(42·여)는 최근 동탄2신도시 남부권에 분양중인 아파트에 관심이 많다. 분양가가 오를때로 오른 동탄2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비해 남부권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아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이 안심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도 밀집된 데다 동탄 최대규모의 호수공원이 들어선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도권 내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동탄2신도시 등 경기 남부권에서 연말에 분양 대전이 펼쳐진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에는 11월에 6089가구, 12월 2832가구 등 연말까지 8921가구가 공급된다.

브랜드별로는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2630가구 ▲e편한세상 동탄 1526가구 ▲동탄자이파밀리에 1067가구 ▲동탄신도시 3차 푸르지오 913가구 ▲인스빌리베라 980가구 ▲금호어울림 레이크 812가구 ▲제일풍경채 600가구 ▲호반베르디움 393가구 등이다.

올 들어 경기지역은 경기 남부권에 분양 물량이 집중됐다.

1~10월까지 경기도에는 16만3366가구가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권이 12만5789가구로 가장 많았고 ▲화성 2만4948가구 ▲용인 2만260가구 ▲김포 1만5664가구 ▲시흥 1만1783가구 ▲수원 1만1707가구 ▲광주 8394가구 ▲하남 8178가구 ▲평택 7917가구 ▲안양 4817 ▲안산 4188 ▲이천 1907가구 등으로 이어졌다.

경기 남부권이 주목받는 이유는 인근 시세 대비 일부 저렴하게 공급되는 데다 각종 개발호재로 웃돈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말 GS건설과 금호건설이 분양 예정인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물량으로 분양가가 900만~1000만원선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근 시세 대비와 비교했을 때 3.3㎡당 100만~300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동탄1호선(광교~KTX동탄~오산(예정))과 동탄2호선(병점~동탄2신도시순환(예정)) 등 개발 호재로 웃돈 프리미엄 단지가 등장하고 있다. 워터프론트 콤플렉스는 164만2000㎡ 규모의 레저, 문화, 쇼핑, 주거시설이 어울어진 복합공간으로 꾸며진다. 9개의 커뮤니티공원과 전체부지의 약 47%가 공원·녹지, 수변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인근에서 분양했던 A66블록 LH공공분양물량은 최근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3800만~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리베라 CC 남단에서 분양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3.0과 호반베르디움5차도 최소 35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웃돈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인기에 힘입어 이달에만 6000여가구 물량이 쏟아진다.

GS건설과 신동아건설은 이달 A90블록에서 ‘동탄 자이파밀리에’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0층, 11개 동, 1067가구,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금호건설은 같은 달 동탄2신도시 A91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2층~지상25층, 10개동, 812가구 규모, 전용면적 59㎡~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리베라CC 인근인 A45블록에서는 12월 대림산업이 ‘동탄2신도시 e편한세상 동탄’(1526가구)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상 25층, 전용면적 60~137㎡, 1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같은 달 동탄테크노밸리 인근인 A5블록에서는 대우건설이 ‘동탄2신도시 3차 푸르지오’ 913가구, A97블록에서는 호반건설이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 6차’ 393가구를 공급한다.

/박상길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동부건설

대표이사에 김경진씨 선임



동부건설은 김경진 경영지원본부장(55·**사진**)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임직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수주영업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회사의 체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건설명가를 재건해 우리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에 임직원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대구상고와 경북대 경영학과를졸업한 뒤 1986년 동부건설에 입사해 기획팀장, 경영혁신팀장, 기획담당 상무, 공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동부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회생절차 업무를 주관했으며 인수합병 업무도 총괄했다. /박상길 기자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2군 청약 마감

대림산업

최고 126.75대 1 기록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일대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2군 청약이 평균 2.07대 1, 최고 126.75대 1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4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진행된 2군 청약 접수 결과 21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464명이 청약했다. 이중 1658개의 1순위 청약 통장이 몰리며 16개 타입이 1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채웠다.

2일 가장 치열한 접전을 보인 주택형은 3블록 전용면적 59㎡ A타입으로 1순위 수도권 모집군에서 35.2대 1을 기록하며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3일 진행된 2순위에서는 2806명이 지원하면서 전 주택형이 주인을 찾았다. 전용 84㎡ A타입은 수도권 모집군에서 126.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 발표는 1군 5일, 2군 9일, 3군 11일이며, 정당계약일은 16일~18일이다.

/박상길 기자

롯데월드타워에 ‘프리미엄 오피스텔’ 생긴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40~70층에 총 223가구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롯데월드타워에 프리미엄 오피스텔과 6성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4일 롯데물산 노병용 대표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5면>

총 123층으로 건축되는 롯데월드타워 중 40~70층까지를 오피스텔로 분양할 예정이며 평수는 60~200평이다.

노 대표에 따르면 분양가는 롯데월드타워의 프리미엄을 생각해 인근 평균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될 예정이다. 총 223가구가 분양되며 이름은 ‘시그니엘 레지던스’다.



제2롯데월드 조감도. /롯데면세점

부동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월드몰단지 인근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2300만원 수준이다.

한편, 롯데월드타워 74층~100층까지는 6성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성현 기자 minus@

강북 아파트 평균 매매가 4억 돌파

지난 10월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4억원을 돌파했다. 2012년 8월 4억106만원 이후 2년여 만이다.

4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5억186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2년 8월 5억2034만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강북지역(한강 북부)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월 3억9946만원보다 평균 185만원 상승한 4억130만원을 기록했다.

강북지역 아파트값 상승은 전세난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늘어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북 14개구의 평균 전셋값은 2억9803만원으로 3억원에 육박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서울 평균 72.3%보다 높은 74.3%까지 올랐다. /박상길 기자

"롯데월드타워점 '글로벌 면세점' 재탄생 할 것"

롯데면세점

5년간 1조2000억원 투자 '관광쇼핑 복합단지' 시동



롯데면세점 이홍균 대표(왼쪽)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MOU체결식 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롯데면세점



롯데월드몰에 설치될 123m 높이의 음악분수 조감도. /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잠실 롯데월드몰 면세점이 소공동 본점 면세점 매출을 넘어서겠다는 '월드타워점 글로벌 NO.1 청사진'을 4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김보준 마케팅부문장은 이날 서울 잠실 월드타워 단지에서 개최된 프레스투어에서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을 추가 투자해 '관광쇼핑 복합단지 면세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강남권에 세계최대 관광벨트 조성

롯데면세점은 강북권 대비 강남권의 부족한 관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석촌호수에 국내 최대 규모인 123m 높이의 대형 하모니 음악분수를 조성해 관광명소를 만들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층(123층, 지상 500m) 전망대 ▲1200억원을 투자한 빈야드 클래식 전용홀 설립 ▲국내 최장(85m) 수중터널의 아쿠아리움 ▲높이 414m의 6성급 호텔 ▲실내테마파크 롯데월드어드벤처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해 월드타워점을 강남권 최대의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롯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이러한 관광자원들을 활용해 '강남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강남-강북을 잇는 시티투어버스도 별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동대문-서울숲-잠실역'과 '남산-압구정'을 잇는 2개의 시티투어버스 노선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가로수길·압구정로데오·강남역·코엑스몰·석촌호수·한성백제문화박물관·올림픽공원·풍납백제문화공원'으로 이어지는 강남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이에 필요한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달 6일은 송파구와 27일은 강남구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개최된 프레스투어에서는 서초구와 MOU를 체결했다.

◆중소기업·지역과 함께하는 상생경영

롯데면세점은 내년 하반기 월드타워점 내 중소·중견 브랜드 매장 면적을 지금의 2.3배인 3000㎡ 규모로 확대,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브랜드 매장 'K-스토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동반성장팀'을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업해 사회적기업과 천년벤처기업 중 우수브랜드 발굴, 인터넷 및 시내면세점 입점 추진, 인테리어 비용 100%지원,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역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울산(진산), 창원(대동), 청주(중원), 양양(주신) 등 지방 중소 시내 면세사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유치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롯데면세점은 이들 면세점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브랜드 공급사와의 협약을 통한 브랜드 입점 지원을 추진 중이며 마진 없이 상품구매를 대행·공급하고 있다.

송파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18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을 착실히 실행하고 있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남대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키로 한 액수 5억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 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방이시장 등 전통시장에 발전기금도 후원 중이다.

최근에는 강남구에 사회공헌기금 2억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는 "3조8000억원을 투자한 문화관광 복합인프라 제2롯데월드를 대표하는 '월드타워점'은 기획단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곳으로 세계적인 랜드마크 면세점으로 육성시켜 소공동 본점을 능가하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며 "우리나라 관광 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한 강남권 관광사업 발전에 월드타워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이 지난 9월 25일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월드타워점은 2010~2014년까지 5년간 CAGR(연평균성장률) 21%를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4% 신장했다. 롯데면세점 측은 현재 성장세를 유지해 2020년에는 1조5000억원의, 2025년에는 4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홈플러스에서 다양한 수능용품 구경하세요"

홈플러스는 2016년도 대입수능을 앞두고 이달 5일~12일까지 전국 홈플러스 141개 점포에서 '수능용품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핫팩, 담요, 방석, 견과, 전복, 낙지, 토종닭 등을 기획 특가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농협유통, 베트남 어린이와 함께 '김치 체험' 즐겨

김치 만들고 맛보는 시간 가져

농협유통은 4일 농협재단이 초청한 베트남 박닌성 김천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20여 명과 함께 김치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서 한국 김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김천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은 김치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다양한 김치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농협유통은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 견학을 통해 베트남 어린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소개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성현 기자

대표 편의점-최대 포털, 손잡았다

네이버내 전용몰 설치 등 제휴·홍보 협력 업무협약



GS25와 네이버가 O2O서비스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왼쪽)과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가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S리테일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과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가 손을 잡았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지난 3일 네이버와 O2O(Onlie to offline)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적 제휴 및 제휴마케팅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GS리테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김상헌 네이버대표이사와 양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GS25는 편의점 업계 최초로 네이버 쇼핑 O2O 플랫폼 내에 GS25 전용관을 오픈하는 등 다양한 O2O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GS25는 네이버와 손잡고 지난달 22일 네이버 쇼핑윈도의 전문관 중 하나인 푸드윈도에 GS25 전용관을 오픈하고 다양한 행사 상품의 기프티쿠폰 판매를 시작했다. GS25는 네이버 푸드윈도를 통해 GS25는 1+1, 2+1이 적용되는 진보된 O2O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GS25와 네이버는 향후 보다 혁신적인 O2O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다양한 공동 마케팅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O2O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고객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쇼핑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진 O2O 거래가 상용화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GS25는 다양한 판매 채널과 새로운 쇼핑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현희기자 yhh1209@

"스코틀랜드 원액에 한국인 취향 담아"

디아지오코리아 '윈저 더블유 레어' 출시

英 왕실 보증 '원액' 선정
향부터 목넘김·여운까지
빈틈 없는 부드러움 선사

"'윈저 더블유 레어'는 조화의 산물이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표본이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조화인만큼 이 제품에는 스코틀랜드 전통을 살리면서 한국 소비자의 니즈를 블렌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류전문기업 디아지오코리아 조길수 대표는 4일 서울 정동 영국대사관에서 슈퍼 프리미엄 제품 '윈저 더블유 레어'의 출시를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획단계부터 한국 소비자를 위해 준비된 제품임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한국인의 선호도를 반영하기 위해 제품 기획단계부터 최상의 부드러움을 기치로 내걸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디아지오가 가진 이노베이션을 총동원해 탄생한 제품"이라고 윈저 더블유 레어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윈저 더블유 레어는 프리미엄 제품답게 원액부터 깐깐하게 선정했다. 디아지오는 스카치 위스키의 명가인 로열 라크나가 증류소에서 200통의 원액 중 한통을 선별해냈다. 원액 선별은세계적인 마스터 블렌더 더글라스 머레이가 담당했다. 증류소인 로열 라크나가에도 프리미엄 이미지가 투영돼 있다. 로열 라크나가는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방문한 후 품질을 인정해 왕실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로열'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원액부터 왕실의 특별함을 담은 것.

조 대표는 경쟁사를 의식한 제품을 내놓기 보다 디아지오의 전략에 부합하는 제품을 꾸준히 선보이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그는 "저도주 알콜에 대한 니즈가 늘면서 주류 제조사들이 향미와 풍미로 경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달콤함을 강조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한 위스키는 목넘김에 있다. 부드러움이 중요한 이유"라며 디아지오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엄 주류기업 디아지오코리아가 4일 중구 영국대사관에서 슈퍼프리미엄 '윈저 더블유 레어'를 소개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스카치 위스키 명문 '로열 라크나가' 원액을 넣어 최상의 부드러움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왼쪽 두번째)와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왼쪽 세번째)가 모델들과 '윈저 더블유 레어'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신제품을 출시하며 디아지오측은 코로 느껴지는 향부터 목넘김, 마지막 여운까지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것이 윈저 더블유 레어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디아지오를 주류회사라는 표현 대신 문화전도사라고 표현하며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문화와 한국 소비자들의 음식문화를 적절하게 블렌딩하는 것이 바로 디아지오다. 앞으로도 문화전도사로써 소비자 니즈를 읽으며 국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

한편 윈저 더블유 레어 450㎖는 3만8170원이며 도수는 35도다.

/유현희 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새로 나왔어요

대상 청정원 '리얼잼' 4종
설탕 대신 100% 과일즙 단맛



대상 청정원이 설탕을 전혀 넣지 않고 100% 과일로만 만든 프리미엄 잼 '리얼잼'(사진) 4종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잼은 딸기, 블루베리, 키위, 레몬 4종으로 설탕 대신 과일즙으로 단 맛을 냈다. 청정원 리얼잼은 다른 첨가물 없이 100% 과일로만 만들었다. 산미료 역시 시판 잼에 주로 사용되는 구연산 대신 레몬즙을 넣어 자연 그대로의 맛을 살렸다. 청정원 리얼잼 4종 가격은 350g기준 딸기, 레몬, 키위는 각 7000원, 블루베리는 8000원이다. /유현희 기자

유니클로 '겨울 컬렉션'
히트텍 소재 보온성 탁월

SPA 브랜드 유니클로가 겨울을 맞아 '2015 가을·겨울 웜팬츠 & 웜스커트 (Warm Pants & Warm Skirts)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웜팬츠'와 '웜스커트'는 부드러운 '후리스(Fleece)' 또는 기모 소재를 안감으로 사용했다. 이번 컬렉션에는 유니클로의 대표적인 기능성 소재인 '히트텍(HEATTECH)'을 사용한 여성용 '히트텍 레깅스 팬츠'와 남성용 '히트텍 슬림 피트 진' 등도 포함돼 있다. 또 일부 남성용 제품들은 겉감과 안감 사이에 얇고 가벼운 방풍 필름을 추가해 방풍 기능도 갖췄다. 이번 컬렉션은 전국 유니클로 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www.uniqlo.com)에서 판매한다. /유현희 기자

일동후디스, 나만의 앤업카페 스타일 찾아라

일동후디스가 앤업카페 일반인 모델과 함께하는 '마이 앤업카페 스타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참가방법은 앤업카페 브랜드 사이트(www.nupcafe.com)에 접속해 앤업카페 모델들의 6가지 사진 중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SNS에 공유하고, 해시태그(#마이앤업카페스타일 #앤업카페)를 달면 된다. 참가기간은 20일까지며 추첨을 통해 1등(1명) LG트롬 스타일러, 2등(2명) 루즈앤라운지 가방, 3등(3명) 후디스몰(www.foodismall.com) 10만 마일리지, 4등(100명) 앤업카페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유현희 기자

파리바게뜨, 국내 최초 라스베이거스 상륙

미국 내 44번째 매장 열고
관광객 겨냥 선물상품 전시

SPC그룹이 국내 베이커리업계 최초로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 파리바게뜨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파리바게뜨 라스베이거스점(사진)은 미국 내 44번째 매장이다.

파리바게뜨 라스베이거스점(사진)은 408㎡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로 유명 쇼핑몰인 '그랜드 커낼 숍(Grand Canal Shoppes)' 내에 자리잡았다. 이 곳은 라스베이거스의 대표 호텔인 '베네시안'과 '팔라조'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탈리아 '베니스'를 재현한 인테리어로 유명세를 얻고 있다.

파리바게뜨의라스베이거스점은 미국에서 인기가 높은 샌드위치, 크로와상, 머핀, 조각케이크류를 중심으로 관광지의 특성에 맞게 선물류 제품을 강화했다. 라스베이거스를 상징하는 이미지와 문구를 담은 다양한 선물세트와 텀블러, 머그잔 등 라스베이거스점 전용 상품도 판매한다.



파리바게뜨 미국법인 관계자는 "연간 40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 라스베이거스에서 파리바게뜨의 맛과 품질을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대도시에 추가로 진출해 미국 전 지역으로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KT&G·KGC 인삼공사, 신입사원 공채

청년고용 확대 앞장

KT&G와 계열사인 KGC인삼공사가 '2015년도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양사 모두 일반사무·제조·원료·R&D 등 총 4개 분야다.

이와는 별도로 KT&G는 학력과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영업·생산 분야에서 약 100명의 신입사원도 함께 채용한다. 생산분야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전형절차는 채용분야별로 서류전형, 역량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 등의 순이며 4년제 대졸 지원자의 경우 1박2일간의 합숙면접을 진행한다.

입사지원서 접수는 양사 모두 채용 홈페이지(http://ktng.saramin.co.kr)를 통해 오는 9일 오전 10시까지 가능하며, 최종합격자는 11월 말부터 각 사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KT&G 임직원들의 일자리를 나눔에 따라 마련됐다. KT&G는 지난달 26일 기준 임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나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사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KT&G 관계자는 "KT&G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감소 등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자리 부족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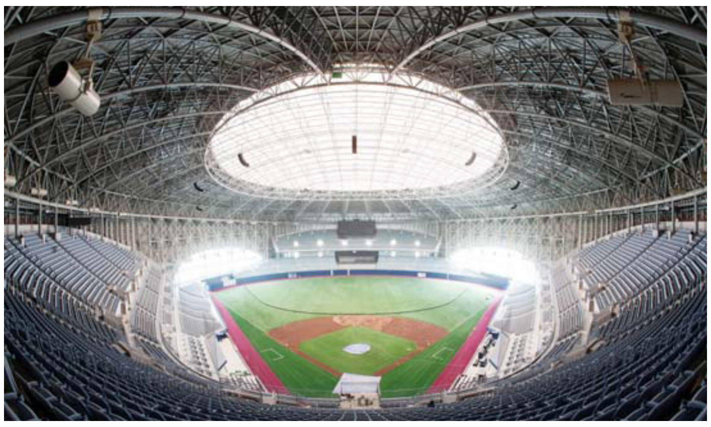
'고척돔' 베일 벗었다

韓 첫 돔구장 4일 정식 개방
부대 시설은 차례로 열기로

대한민국 최초 돔구장 고척스카이돔이 4일 정식 개장했다. 새롭게 조성되는 보행광장과 야구테마거리를 비롯해 다양한 시민 부대시설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4500㎡ 규모를 자랑하는 보행광장은 안양천~고척교 사이에 고가형태로 조성됐다. 평소에는 시민 휴식 공간으로 운영되며 대관을 통해 마케팅, 이벤트, 공연 장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고척교~구일역 뚝방길에는 야구테마거리가 조성된다. 야구테마거리에는 야구글러브, 배트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순철, 선동열 등 레전드 야구스타의 동판 핸드프린팅도 전시한다. 내년 3월 야구 시즌 완공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의 내부. /서울시

한편 현재 지하철 1호선 구일역에는 고척스카이돔 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출구가 없어 관람객이 고척스카이돔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데 약 10분이 소요된다. 최단거리로 진입 가능한 서쪽 출구 공사는 진행중으로 내년 프로야구 개막 시기에 맞춰 완공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수영장(25m, 6레인) ▲헬스장(676㎡), ▲축구장(4500㎡), 농구장 등 부대시설도 운영돼 시민들의 즐길 거리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백신연구 10년 노하우 재조명

이화백신효능센터
13일 이대목동병원서 심포지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가 오는 13일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이화 백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심포지엄 개최 10년을 기념해 'Ewha's Commitment to Better Vaccines'를 주제로 그동안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에서 10년간 해왔던 다양한 백신 연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외 석학을 초청해 백신 개발, 평가 분야의 강연과 함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최신 지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폐구균 백신과 관련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미국 버밍햄 알라바마 주립대학의 Moon H. Nahm 교수가 방한해 'MOPA legacies for the World'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을 주최하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김경효 교수(사진)는 현재 대한소아감염학회 회장과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Hib) 백신과 폐구균 백신에 관한 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백신 평가와 정책 연구를 수행해 이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편 이화백신효능연구센터는 2006년 개소 이래 매년 이화백신 심포지엄을 개최해 외국의 백신 연구 석학과 국내 백신 전문가를 초빙, 백신 연구의 최신 지견과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이 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한강으로 생태체험 떠나자

서울시
한강공원 생태교실 64종 운영
홈페이지서 선착순 예약 접수

한강공원에서 가족·연인을 위한 다양한 가을 생태 프로그램이 열린다.

4일 서울시는 11월 한달간 8개 한강공원에서 64종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난지한강공원 야생탐사센터에서는 14일(가족 대상), 21일(성인 대상) 오후 3시~7시까지 '에코데이캠프'를 연다. 지인과 함께 한강 지천길을 따라 붉게 물든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겸재의 풍경 속으로 ▲한강야생 동물학교 ▲냉장고를 털어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해 생활용품을 만드는 '가을 리스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8일과 22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가량 진행된다. 철새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비행의 비밀'은 11월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운영한다.



한강공원 문리버워크에 참여한 시민들이 캠프파이어를 열고 있다. /서울시

고덕수변생태공원에서는 22일 오후 2시~3시30분까지 '씨앗과 열매의 번식 전략'을 편다. 여러 종류 식물의 씨앗과 열매를 관찰할 수 있어 호기심 많은 자녀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에서 생태계 보존이 가장 잘 돼 있는 공원이다. ▲단풍잎은 내 친구 ▲억새군 갈대양 ▲도전 오리박사 ▲어린이 119 곤충 아파트를 지어라 등의 학습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고홍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온 가족 뿐만 아니라 연인·친구와 함께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에 참여해 노을 지는 한강에서 가을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나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http://yeyak.seoul.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 접수하면 된다. (문의: 02-3780-0846)

/신원선 기자

네이처리퍼블릭, 태연·EXO와 의리 지킨다

전속모델 재계약… 시너지 기대

네이처리퍼블릭은 전속모델 EXO(엑소), 소녀시대 태연과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모델로 활동한 EXO와 태연은 브랜드 인지도와 함께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K-Beauty의 열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건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두 모델을 통해 진실된 자연주의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계약을 연장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측은 "EXO와 태연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자연주의 콘셉트와 가장 잘 부합하다고 판단해 재계약을 결정했다"며 "특히 큰 팬덤이 형성돼 있는 글로벌 스타들인 만큼 차별화된 매력으로 K-Beauty를 보다 활발하게 알리고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건보공단,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논의

서울본부 "공공병원 참여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방안을 논의했다.

건보공단 서울본부는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확대 추진과 관련해 서울지역 공공병원 중 미실시 공공병원장과 서울시 보건의료 정책팀을 초청해 간담회(사진)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2013년 7월 시범사업 시행 이후 2015년 건강보험사업으로 전환해 지방 중소병원 및 서울 지역 전문병원으로 확대된 포괄간호 서비스 내용과 참여절차 등을 설명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이상화 팀장은 포괄간호서비스뿐만 아니라 공단 2025뉴비전의 전략사업인 보장성 강화에 공감을 표하며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임재룡 본부장은 "국정과제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선도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원선 기자

"렌즈에 입김 후~ 정품 확인 참 쉽죠"

케미렌즈
렌즈에 '포그마킹' 기술 적용

국내 최대 안경렌즈제조업체인 케미렌즈가 쉽게 정품 렌즈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케미렌즈는 '포그마킹'이란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했다. 포그마킹은 안경에 입김을 불면 렌즈 전체가 김서림으로 뿌옇게 되지만 정품표시된 'CHEMI' 마크 부분은 생산공정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포그가 생기지 않아 구별을 할 수 있다. 입김이 없어지면 마크가 사라져 평상시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다.



케미렌즈 관계자는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최첨단 기술"이라며 "렌즈의 정교한 특수공정의 기술이 가미되어 만드는 기법"이라고 설명했다. 케미렌즈는 포그마킹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보호하에 케미렌즈에서만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브라운아이드걸스(왼쪽부터 제아·미료·나르샤·가인)가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열린 정규 6집 앨범 '베이직(BASIC)' 발매기념 컴백 뮤직토크쇼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손진영 기자

가창력·퍼포먼스 담은 '좋은 음악' 기대하세요

2년 4개월 만에 돌아온 브라운아이드걸스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제아·나르샤·미료·가인, 이하 브아걸)가 2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5일 자정 공개되는 6번째 정규 앨범 '베이직(BASIC)·사진'은 브아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본'을 담은 음반이다. 보컬 그룹으로 출발한 만큼 멤버들이 지닌 가창력과 랩 실력, 그리고 대중적인 사랑과 인기를 안겨준 퍼포먼스 실력,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음악이 바로 브아걸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베이직'이다.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브아걸이 '베이직'을 콘셉트로 내세우게 된 것은 10년차 걸그룹으로서의 고민이 담긴 결과다. '러브' '아브라카다브라' '식스센스' 등 브아걸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조영철 프로듀서와 다시 호흡을 맞춘 이유이기도 하다.

브아걸 멤버들도 처음에는 이번 앨범의 콘셉트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다소 어려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서울 이태원의 한 음악 공연장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만난 브아걸 리더 제아는 "처음 조영철 프로듀서님으로부터 '베이직'이라는 주제에 대해 들었을 때 걸그룹이 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멤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받아들이게 됐다.

"난해한 주제였지만 한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원래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도 했고요. 심도 있게 세상의 본



질에 대해 고민해봤어요." (미료)

"처음에는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까지 고민해야 하나 싶었어요(웃음). 그래도 어차피 도전할 거면 어려워도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나르샤)

이번 앨범에는 정석원·박근태·프라이머리·G.고릴라·에코브릿지·신수란을 비롯해 국내외 정상급 작곡가들이 참여했다. 멤버들도 앨범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오늘 신곡 '베이직'으로 컴백
데뷔 10년 걸그룹의 고민 앨범에 본질 담으려 노력 음악이 궁금한 그룹될 것

제아는 '라이트(Light)'와 '프랙탈(Fractal)'의 작곡에 참여했고 미료는 전곡의 랩 가사를 썼다. 가인과 나르샤는 퍼포먼스와 스타일링에 아이디어를 보탰다.

타이틀곡 '신세계'는 작곡가 이민수와 작사가 김이나가 함께 한 노래다. 복고적인 브라스 사운드와 현대적인 댄스 사운드가 뒤섞인 색다른 장르가 인상적이다. 미료는 "3000년대의 시점에서 바라본 20세기와 21세기를 표현한 노래"라며 "세상의 본질을 탐구하다 발견한 신세계에 대한 놀라움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데뷔 이후 10년 동안 브아걸은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걸그룹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포화상태가 된 지금의 음악 시장에서 브아걸 또한 나름의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베이직'으로 돌아온 브아걸이 내세우는 자신들의 무기는 바로 음악과 여유다.

"요즘 저희처럼 센 이미지를 콘셉트로 나오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모든 걸 잃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 없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웃음) 그리고 그런 모습을 팬들이 사랑해주시는 것 같고요." (가인)

"우리끼리는 데뷔 10년차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요. 누군가 얘기해줘야 '10년이나 됐구나'라며 깨닫게 되죠.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음악이 궁금해지는 그룹이 되고 싶어요." (제아)

/장병호기자 solanin@·사진/손진영 기자 son@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 5개월 여정 마치고 크랭크업

박찬욱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지난달 31일 5개월 동안의 촬영을 모두 마쳤다.

영화 '아가씨'는 1930년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 그리고 백작에게 고용돼 아가씨의 하녀가 된 소녀를 둘러싼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김민희가 아가씨 역을, 신예 배우 김태리가 하녀 역을, 하정우가 백작 역을 맡았다. 조진웅·김해숙·문소리 등도 출연한다.

지난 6월 15일 일본 쿠와나시에서 첫 촬영을 시작한 '아가씨'는 일본 로케이션을 거쳐 강원도 평창·충청북도 괴산·전라남도 고흥·경기도 파주, 그리고 합천 오픈세트와 파주·남양주·안성의 실내 세트 등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했다.

촬영을 마친 뒤 김민희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겨울을 시작으로 봄·여름·가을까지 '아가씨'와 사계절을 함께 했다. 굉장히 후련하고 기분 좋고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리는 "어떤 날은 촬영이 끝나는 게 굉장히 아쉽고 슬프고 먹먹했고, 어떤 날은 굉장히 기쁘고 시원하기도 했다. 복잡한 마음으로 촬영을 마쳤는데 즐거운 표정으로 촬영을 마무리하는 스태프들의 얼굴을 보니 무척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정우는 "시나리오를 만나고 촬영을 마치기까지 딱 1년이 걸렸다. 정말 즐겁게 뜨거



운 여름을 보냈다"며 "굉장히 뜨거웠고 정성스러웠고 또 열정적이었던 모든 것들이 스크린을 통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거라 믿는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영화 '아가씨'는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김조한 '내가 먼저 찾아갈게' 발표

가수 김조한이 4일 정오 신곡 '내가 먼저 찾아갈게'를 발표했다.

'내가 먼저 찾아갈게'는 바쁘고 각박한 현실 속에서 소중한 사람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일깨움을 담은 곡이다. 12일 발표 예정인 정규 6집 앨범 '원스 인 어 라이프타임(Once in a Lifetime)'의 선공개곡이다.

김조한은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 버스킹 투어도 진행했다. 김조한은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 에너지를 드리고자 버스킹 투어를 준비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우리 가족, 친구에게 연락 한 번 하기가 힘든데 제가 부른 노래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힐링으로 남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뮤지컬단
Musical
서울1983
그리움은 지치지도 않고
가슴을 파고든다
연출 _ 김덕남 | 작 _ 김태수 | 작곡 _ 송시현
1983년 서울에서 시작된 그리움의 울부짖음
우리를 감동시킬 명배우 _ 나문희, 박인환
33년 만에 초로의 노인이 되어
압록강국경 갈대숲에 마주선 두 명배우의 명품연기가 기대된다
2015.10.30-11.15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출 연 _ 나문희 박인환 곽은태 왕은숙 권명현 주성중 오성림 원유석 임승연 박정아 박선옥 이신미
이경준 박성훈 신대성 고준식 이연경 유 미 박원진 한일경 정선영 홍은주 우현아 이승재
김범교 허도영 김형석 주경환 김수영 조현태 송종현 도례미 박경진 김은별
예매처 _ 세종문화티켓 www.sejongpac.or.kr 02-399-1000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1544-1555
관람료 _ VIP 110,000원 | R 90,000원 | S 70,000원 | A 50,000원 | B 30,000원
주 최 _ |재|세종문화회관 | 제작 _ 서울시뮤지컬단, (주)인사이트엔터테인먼트
문의 | 서울시뮤지컬단 02-399-1772~3

KBS교향악단 700회 정기연주회

울려퍼지는 말러의 '부활'
요엘 레비, 암보 지휘 선봬

<악보없이 지휘>

KBS 교향악단은 오는 2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제700회 정기연주회'를 연다.

1956년 12월 20일을 시작으로 올해 700회를 맞이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말러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한다.

지휘는 KBS 교향악단의 음악감독이자 세계적인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정평이 나있는 요엘 레비가 맡았다. 1시간 30분 동안 연주되는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암보로 지휘한다.

특히 연주 마지막 교회 종소리를 표현하기 위해 큰 종과 250명이 넘는 출연진이 자리한다. 호른 11대, 트럼펫 8대를 포함한 120명의 KBS 교향악단과 고양시립합창단·안양시립합창단·서울모테트합창단 등 130명의 합창단이 함께 한다. 칠레 출신 소프라노 카롤리나 울리히, 체코 출신 메조소프라노 다그마르 페코바도 무대에 같이 오른다.

입장료는 2만~8만원이다. (문의: 02-6099-7400) /신원선 기자

파리가는 토종오페라 '천생연분'

국립오페라단

홍콩 원정 성황리에 마치고
내년 프랑스무대 본격 준비



지난달 홍콩에서 원정 무대를 펼친 국립오페라단의 '천생연분' 공연. /국립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이 홍콩 원정 무대를 마무리하고 내년 프랑스 무대를 준비한다.

국립오페라단(예술감독 김학민)의 창작 오페라 '천생연분'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홍콩 컬처럴 센터 그랜드 시어터 무대에 올랐다.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펼쳐진 공연이었다. 이날 공연을 끝으로 여섯 번째 해외 원정 무대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립오페라단과 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과 홍콩의 문화 예술계의 대표주자들의 만남에 관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다.

오케스트라의 지휘를 맡은 김덕기 서울대 교수는 "굴곡 있는 한국의 선율과 리듬의 표현이 쉽지 않았겠지만 아시아 정상의 오케스트라라는 명성에 걸맞게 최상의 테크닉을 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에는 주홍콩영사관 김광동 대사·이현 대리 대사·유병채 영사·홍콩필하모닉오케스트라 마이클 맥클로드 이사장·홍콩아츠페스티벌 티사 호 이사·홍콩 정부 가족부 라우 콩 와 비서관·에밀리 라우 홍콩 민주당 주석·시드 호 사무-란 홍콩 민주당 부주석 등이 자리했다.

국립오페라단은 2006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에서 '천생연분'의 세계 초연을 한 뒤 일본·중국·싱가포르·터키·홍콩에서 공연을 이어왔다. 내년에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토종 오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학민 예술감독은 "2006년 유럽 초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유럽을 찾아가는 만큼 새롭게 다듬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르겠다"며 "한국 창작 오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천생연분'은 전통혼례와 결혼풍속을 그린 이야기로 '결혼'이라는 주제에 한국의 미적 감각을 더한 오페라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까마득한 신인 시절 고백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배우 장혁·박은혜·김민정6정태우·한채아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장혁은 까마득한 신인 시절의 에피소드를 털어놓는다. 오디션에서 113번 낙방한 사연부터 주연 역할에서 '병풍' 역할이 된 사연 등을 밝힌다. 박은혜도 연기를 못해 통편집을 당한 이야기를 고백한다.

◆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오후 9시30분

기욤 패트리와 송민서는 장모와 함께 혼수 장만을 위해 남대문 시장을 찾는다. 기욤 패트리는 장모와 한층 더 가까워진다. 윤정수와 김숙은 실시간 댓글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2'

오후 9시40분

가수 인순이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남다른 비주얼과 몸매를 지닌 미스터리한 출연진들이 소름 돋는 가창력과 충격적인 반전의 무대를 선보인다.



◆ KBS1 '명견만리'

오후 10시

영화감독 장진이 인공지능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직접 취재했다. 장진 감독이 만난 인공지능의 진짜 얼굴을 공개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내일도 승리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스페셜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0:20 비정상회담 (재) 11:55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05:10 현장토크쇼 TAXI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6:2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8:00 응답하라 1994 (재) 10:00 미생, 완생을 꿈꾸다 10:20 할매네 로봇 (재) 11:40 수요미식회 (재)	05:00 조셉 고든 레빗의 69채널 06:40 롤플레이 08:10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0:40 세이프	05:00 디스커넥트 07:00 플랜맨 09:20 에이리언 11:40 러브 레터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10 청년 대한민국 황금손의 기적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엄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집밥 백선생 (재) 14:2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6:10 응답하라 1988 시청지도서(재) 17:30 코미디 빅리그 (재)	12:30 리얼 스틸 14:50 쟈니 잉글리쉬2:네버다이 17:00 전우치 19:40 툼스톤(2014)	14:00 제보자 16:10 10,000 B.C.
18:00 6시 내고향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우리 집 꿀단지 21:00 KBS 뉴스 9 22:00 명견만리 23:00 KBS 뉴스라인 23:40 한 뼘의 기적, 텃밭 24: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00 글로벌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비타민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MBC 특선영화 쎄시봉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스페셜	19:00 수요미식회 (재) 20:20 어쩌다 어른 (재)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23:00 슈퍼스타K7 24:50 콩트앤더시티 (재)	20:00 분노의 질주 6:더 맥시멈 21:30 2012 24:2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18:10 헐크 20:50 주말 N 영화 22:00 더 웹툰:예고살인 24:00 폴리스 스토리 2014

전북 "제주서 끝내자"… 리그 2연패 도전

승점 69로 1위… 원정 경기 승리땐 우승 확정


전북 현대가 오는 8일 제주 원정 경기를 통해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FC서울과의 경기를 마친 뒤 구단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왼쪽)과 함께 서포터즈에게 인사하고 있는 전북 선수들. /연합뉴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오는 8일 열리는 제주 원정 경기에서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우승에 도전한다.

전북은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5라운드까지 승점 69를 획득했다. 2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62)보다 7점 앞서 있다.

포항은 남은 세 경기에서 다 이겨도 승점 71이다. 전북은 8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승점 72가 돼 우승을 확정한다.

다만 비기거나 패하면 포항은 물론 3위 수원 삼성(승점 61)의 결과까지 따져봐야 한다. 전북이 비기면 승점 70이 된다.

포항과 수원이 이번 주말 경기에서 모두 패해야 우승을 확정짓는다. 만약 한 팀이라도 이긴다면 우승 확정은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포항은 8일 성남FC와, 수원은 7일 FC서울과 승부를 펼친다. 전북이 제주에 지고도 우승을 확정하려면 포항이 패하고 수원은 비기거나 져야 한다. 전북으로서는 제주를 꺾고 우승을 확정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전북-제주 경기는 8일 오후 2시, 포항-성남전은 오후 4시에 시작한다. 전북이 제주를 꺾지 못하면 우승을 확정하기 위해 포항의 경기 결과를 기다려야만 한다.

공교롭게도 전북은 지난 시즌에도 날짜까지 똑같은 11월 8일 제주 원정에서 3-0으로 승리해 K리그 우승을 확정한 바 있다.

전북은 2009년·2011년·2014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만약 우승한다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리그를 제패한 성남 일화(현 성남FC) 이후 12년 만에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구단이 된다.

전북은 이번 시즌 제주와 3번 대결해 2승 1패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지난달 4일 제주 원정 경기에서는 2-3으로 패했다.

현재 포항, 수원과의 승점 차이와 남은 경기 수를 고려하면 전북의 우승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문제는 시기일 뿐이다. 다만 8일 제주 원정에서 우승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A매치 일정 등으로 다음 경기는 21일로 미뤄진다. 전북으로서는 이번 경기에서 우승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잘해라" vs "가지마"

MLB行 이대호, 日 반응 '제각각'

일 언론, 연일 '대서특필'



이대호(33, 사진)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 선언에 대해 일본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스포츠호치,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은 4일 이대호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선언한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소프트뱅크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구도 기미야쓰 소프트뱅크 감독은 스포츠호치와 인터뷰에서 "선수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면서도 "감독으로서는 꼭 다시 돌아와 줬으면 하는 선수다. 혹시 메이저리그 진출에 실패하면 소프트뱅크에 남아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4년 동안 라이벌 구단에서 이대호를 지켜봤던 구리야마 히데키 닛폰햄 파이터스 감독은 기분 좋게 이대호의 메이저리그 도전을 응원했다. 구리야마 감독은 "이대호는 몸쪽 공 대처가 뛰어난 타자다. 메이저리그에서 30홈런은 충분히 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프트뱅크 동료들도 이대호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주장인 마쓰다 노부히로는 "2년간 그와 함께 하면서 많이 배웠다"며 "이대호는 정말 믿음직한 선수"라고 말했다. 내야수 이마미야 겐타는 "이대호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며 "그와 조금 더 오래 팀 동료 관계이기를 바랐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이대호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프트뱅크의 배려 속에 메이저리그 도전에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밝혔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히딩크, 北에 풋살 전파 앞장

오늘 2박3일 일정으로 방북 전용구장 '드림필드' 가속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거스 히딩크(69)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5일 북한을 방문한다.

4일 거스히딩크재단 등에 따르면 히딩크 전 감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풋살축구장인 '드림필드' 건립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히딩크 전 감독은 재단 관계자 등과 함께 5일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평양에 가 드림필드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축구 관계자 등과도 만나 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7일 돌아올 계획이다.

히딩크 전 감독은 2일 대한의사협회의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북한으로 드림필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은 축구와 스포츠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방북 배경을 설명했다.

히딩크재단은 2007년부터 시각장애인과 어린이들을 위해 국내 13개 드림필드를 건립해 왔다.

/장병호기자 solanin@

레알 마드리드, PSG에 1-0 신승…챔스리그 16강 진출

PSG에 1-0 승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조 선두로

스페인 프로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PSG)을 꺾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4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조 4차전 홈 경기에서 PSG에 1-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레알 마드리드는 3승1무(승점 10)를 기록했다. 같은 조 3위였던 말뫼(스웨덴)가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에 0-4로 패해 두 팀이 1승3패가 되면서 레알 마드리드는 자연스럽게 남은 결과에 상관없이 16강행을 확정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CSKA 모스크바와의 B조 조별리그에서 웨인 루니의 결승골로 1-0으로 승리했다. PSV 아인트호벤(네덜란드)에 0-2로 패한 볼프스부르크(독일)를 제치고 조 선두(2승1무1패)로 올라섰다.

D조에서는 맨체스터 시티가 세비야(스페인)와의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조 1위(3승1패)가 됐다. C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는 아스타나(카자흐스탄)와 0-0으로 비겼다.

/장병호기자

부상 회복 손흥민 '유로파 복귀' 유력

토트넘 훈련 합류



발 부상을 당했던 손흥민(23·토트넘·사진)이 부상에서 회복해 다시 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그라운드 복귀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트넘은 이번 주 강행군을 펼쳐야 한다. 먼저 오는 6일(이하 한국시간) 벨기에의 안더레흐트와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J조 4차전을 치른다. 9일에는 아스널과의 정규리그 11라운드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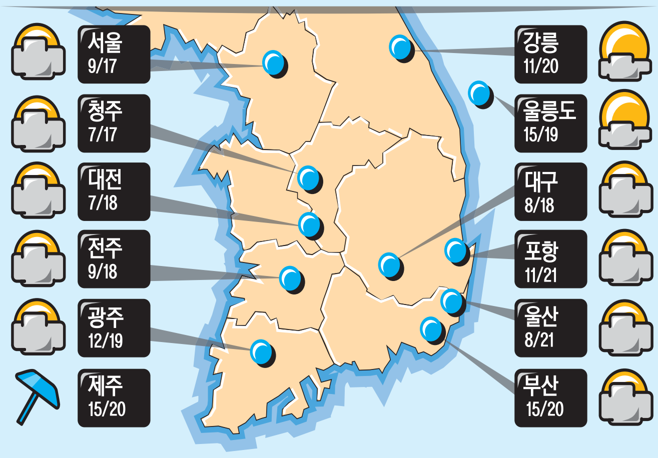
현재 토트넘은 선수들의 체력 유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최근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울리 슈틸리케 축구대표팀 감독도 손흥민의 복귀 시기에 관심이 높다.

/장병호기자

날씨

11/5 목 일출시각 07:00 일몰시각 17:3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7	3		4	
7	1		9					6
4						8		
	2			6		7		5
				3				
1		7		9			3	
		1						2
9					2		7	8
	6		8	4			9	

	8	3				7		
7		2				4		
	4				7		2	3
5				6				
6			9	4	8			5
				7				6
4	6		2				1	
		7				8		9
		8				6	5	

스도쿠 정답

6	5	8	1	7	3	2	4	9
7	1	2	9	8	4	3	5	6
4	9	3	5	2	6	8	1	7
3	2	9	4	6	1	7	8	5
5	4	6	7	3	8	9	2	1
1	8	7	2	9	5	6	3	4
8	7	1	3	5	9	4	6	2
9	3	4	6	1	2	5	7	8
2	6	5	8	4	7	1	9	3

9	8	3	4	2	5	7	6	1
7	5	2	1	3	6	4	9	8
1	4	6	8	9	7	5	2	3
5	7	9	3	6	2	1	8	4
6	3	1	9	4	8	2	7	5
8	2	4	5	7	1	9	3	6
4	6	5	2	8	9	3	1	7
2	1	7	6	5	3	8	4	9
3	9	8	7	1	4	6	5	2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Young : Most of all, you should arrive on time.

New employee: I believe I'll get accustomed to all these things.

Young : That's about all you have to keep in mind here.

New employee: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 : 무엇보다도 정시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신입사원: 분명 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영 :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여기서 지내면서 명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신입사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 man is a new employee.
(B) The woman is a new employee.
(C) The man is angry at the woman's lateness.
(D) This is the story about retiring.

문법Point

I appreciate + 명사
~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흔히 ~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대부분은 'Thank you for~'를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appreciate라는 표현을 써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명사나 명사구를 사용하여 감사한 원인을 표현하십시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남자는 신입사원이다.
(B) 여자는 신입사원이다.
(C) 남자는 여자의 지각에 대해 화가 나있다.
(D) 은퇴에 관한 이야기이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을 오래 못다녀 사업을 할까 고민입니다
직장운도 호전… 무엇이든 한 우물을 파세요

대박나라 80년 10월 25일 양력 1시 30분

Q 항상 선생님의 '사주 속으로'를 빼 놓지 않고 보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심적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어 선생님께 조심스레 상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길게 해 본 직장 생활은 고작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저에게 안 맞는 건지 혹은 직장이 아니면 사업을 하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업훈련 학교를 다니면서 유통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잘 하고 있는 건지 제 자신도 의심이 듭니다. 제가 정말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A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갈래 길에서 양손에 든 떡보따리를 놓치고 탄식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선생, 선배에게 책을 통해서 등등 삶에서 얻은 가르침을 수 없이 망각합니다. 매번 보따리를 잃을 때 마다 각자에게 보따리를 찾을 방도를 알려달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잃은 보따리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난 이상 언제든지 떡보따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면 일단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한 가지 일에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은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하게 됩니다.

팔자에 형살이 강하게 임하고 있는데 이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하기보다는 울분한 심정을 갖거나 일시적 감정 상태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모든 일의 결과는 '내 탓이요'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 팔자에 나타난 대로 이므로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삼형살(三刑殺:액이 겹쳐있음)로 인하여 대인관계나 이성 관계와 가족 사이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인내하고 참는 인성(印星:안정감)의 글자에 공망(空亡:빌공, 망할망)이 들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재고(財庫)로서 재물성취에 힘을 기울이지만 운세가 약하여 흔들리는 것이며 혼전득자(婚前得子:결혼전 애를 얻음)에 처가 잔병에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운은 40세가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계발과 내공을 쌓는 기간으로 매진하세요. 사업 운보다는 직장운도 호전되어 갈 수 있으니 무엇보다도 무엇을 하건 한 우물을 파면서 그 분야에 일류 전문가가 되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1월 5일 (음 9월 2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결과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60년생** 큰 금전거래는 다음을 기약하세요. **72년생**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세요. **84년생** 진로문제로 갈등 있겠습니다.

소 — **49년생** 모임을 참석하면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61년생** 생각도 못했던 소식을 듣게 됩니다. **73년생** 무리를 한다면 무슨 일이라도 불가합니다. **85년생**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호랑이 — **50년생** 문서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실속이 없습니다. **62년생** 허황된 재물에 투자 마세요. **74년생** 남방에서 귀인이 돕겠습니다. **86년생** 사방에 욕심꾸러기와 도둑놈이 보입니다.

토끼 — **51년생** 가족과 어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3년생** 북서쪽으로 곧장 가세요. **75년생** 부부금슬이 좋아집니다. **87년생** 매사 대길한 운입니다.

용 —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소홀히 마세요. **76년생**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88년생** 평생 배필을 만날 수 있으니 주도권을 잡고 나가세요.

뱀 — **53년생** 형제자매와 도모하는 일은 만사 대길합니다. **65년생** 문서 관계를 조심하세요. **77년생** 귀하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89년생** 명예가 오르니 관록에서 빛이 납니다.

말 — **54년생** 선은 길하나 후는 흉합니다. **66년생** 주변에 당신을 해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78년생** 쥐띠, 돼지띠 배우자를 둔 이는 각별히 유의하세요. **90년생** 재물운은 좋고 이성관계 또한 발전합니다.

양 — **55년생** 관재구설 있겠습니다. **67년생** 주색잡기에 조심하세요. **79년생** 형제간의 우애에 힘쓰세요. **91년생** 유흥으로 인해 부모와의 마찰 있겠습니다.

원숭이 — **56년생** 매사 불길하니 자중하고 기도하세요. **68년생** 집안 문단속을 확실히 하세요. **80년생** 부인과의 문제에 친구나 형제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92년생** 좀도둑을 조심하세요.

닭 — **57년생** 애인과 다툼 수 있겠습니다. **69년생**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입니다. **81년생** 아랫사람에게 양보하면 길합니다. **93년생**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할 운입니다.

개 — **58년생** 자식이 효도하니 서운한 감정이 일시에 풀립니다. **70년생**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82년생** 의식주가 넉넉해집니다. **94년생** 안풀리던 관계가 해결됩니다.

돼지 — **59년생** 싸웠던 친구와 화해합니다. **71년생** 하늘이 복을 내리니 만사가 형통합니다. **83년생**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95년생** 북방은 흉하니 헛된 힘을 쓰지 마세요.

항상 배우는 자로 거듭나야



정보철의 산책

아는 자는 배우지 못한다. 이미 알고 있는데 무엇을 배울 것인가.

허나 현자들은 항상 배움을 추구했다. 앎에 대해서 항상 굶주렸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배웠다. 도대체 무엇을 배운다는 것일까.

배움에 대한 물음과 대답은 삶의 정수(精髓)이다. 현자들은 항상 자신을 비워나갔다. 이와 동시 자신을 비운 공간에 그 어떤 것을 채워나갔다. 그것은 바로 이순간이라는 삶 자체였다. 이순간이기에 그들에게는 어제가 없었다. 내일도 없었다. 오직 이순간이다.

이순간에는 학벌, 혈연, 이상, 신념, 야망, 욕구 등 자신을 결정한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이미지가 없다. 이미지가 사라진 곳에는 본질만이 남는다. 본질은 아름다움이다. 직접적으로 삶과 부딪히는 원초적인 것이기에 섹시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현자들은 자신들이 비워놓은 그 자리에 본질, 삶의 아름다움을 채워나간 것이다. 허나 이 아름다움도 다음 순간 비워버렸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아름다움은 퇴색되고 이미지만 남기 마련이다.

삶은 이미지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에 갇혀 산다. 스승에 대한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 그녀에 대한 이미지 등등. 모든 것은 이미지로 이해하고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이미지는 실체가 아니다.

이미지의 취약점은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고정된 것은 지루하다. 역동성이 없다. 세상은 항상 변화하는데 이미지는 그대로 남아 있다. 실체가 아닌 허상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미지를 고집한다. 한 마디로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민하다는 것은 고도의 주의집중을 요하는 일이다. 마음을 항상 열어놓고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한결같은 풍부한 에너지를 요구한다.

에너지의 충족여부가 예민과 둔감을 가르는 가름대이다.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자는 예민 하고는 거리가 멀다.

'태양은 항상 새롭게 떠오른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격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배우는 자는 당연히 예민한 자이다.

반면 아는 자는 배움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배움은 가짜다. 지식의 축적을 배움이라한다.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일 따름인데도 말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축적을 한다.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은 실체를 볼 수 없다. 축적된 지식이 실체를 보는 것을 가로막는다. 따라서 아는 자의 삶은 권태롭다. 허상, 즉 이미지를 반복하기에 지루한 것이다.

배움이란 그 어떤 것도 축적하지 않는 것이다. 축적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흐르지 않는 물이 썩듯이 말이다.

항상 배우는자로 거듭나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예민한 감각과 호기심이 물 흐르듯이 흘러야 한다.

배우는 어린아이의 삶은 희열이 있고 아는 어른은 권태가 뒤따르는 현실을 직시해 보자. /이니야 대표

社說

일본에 떠도는 영혼을 빨리 모셔오라

한국과 일본은 지난 2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대해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 문제가 또 있다. 일제시대에 강제로 노무 동원된 피해자의 유골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일본에 남아 있는 한국인 유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찾아낸 노무 동원자 유골은 2745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53위는 유족의 신원이 밝혀졌고, 95위는 유족이 봉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실제로 돌아온 유골은 거의 없다. 유골봉환 협의가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제 정상회담도 다시 열렸으니 유골봉환 협의를 재개할 때가 온 셈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탓에 꼬여 왔지만, 희생자 유골봉환은 그처럼 까다로운 문제도 아니다. 희생자의 영혼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려주자고 양국이 합의하면 된다. 그래도 일본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본은 또 최근 전몰자 유골수집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은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데려갔다가 이제 '나 몰라라'하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희생자 가족이 개별적으로 나서기보다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선된 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일본에서 떠도는 동포의 유골을 하루 빨리 모셔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조건없는 상생, 기업을 사랑받게 한다



기자 수첩

김 성 현 <유통부>

이달 14일 서울시내 면세 사업자 3곳의 주인이 결정된다.

면세점 입찰 대상 기업인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신세계, 두산은 앞 다퉈 면세점 사업 전략을 내세우며 입찰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특히 이들 4개 기업이 내민 상생·동반성장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는 15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발전을 약속했다. 지방 영세면세점의 자립까지 돕겠다고 선포했다.

SK네트웍스는 2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인근 소상공인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영업이익의 10%를 내놓기로 공약했다. 면세점 상품 중 중소기업 상품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동대문 시장상인들과 끊임없이 교류하며 상생을 외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2700억원 규모의 사회환원, 관광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기업이 전례없는 파격적인 상생방안을 내놓는 이유는 면세점 심사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과 상생협력 노력정도' 평가기준 때문이다.

면세점 입찰을 위해 내놓은 상생 방안이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면세점 입찰이라는 현황이 닥치기 전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마치 스스로를 이롭게 하기 위해 남을 돕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 성장 방해 등으로 다수의 시민단체로 부터 질타를 받아왔던 이들 기업은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자로 변모했다.

한 사회에서 국가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이윤창출을 넘어 경제적·법적·사회적 책임이 동반돼야 '대한민국의 대기업'인 것이다. 이들 기업이 내놓은 파격적인 상생방안, 면세점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업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minus@metroseoul.co.kr

죽어가던 생명 살린 '두유'

소비자 119

우리나라 인구의 70~80% 정도가 락타아제라는 효소 부족해 유당불내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유당불내증이란 유전적으로 유당분해효소가 부족서 생긴다. 유당이 함유된 우유 등을 마셨을 때 탈이 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성인의 경우 잠깐 배탈이 났다가 곧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신생아는 우유는 물론 모유까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특수 분유 시장이 성장하면서 시중에서도 유당을 제거한 특수 분유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반세기 전만 해도 유당불내증으로 유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흔했다. 그런데도 왜 아이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망하는지 원인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런 안타까운 아이들의 죽음을 주목한 이가 있었다.

바로 반세기에 걸쳐 국내 두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정식품의 정재원 명예회장이다. 정 명예회장은 소아과 의사였다. 1937년부터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던 그는 이유 없이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복통과 설사를 거듭하다 사망하는 아이들을 숱하게 접했다.

정 명예회장은 20년 이상 소아과 의사로서 풀지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아 유학길에 올랐다. 마침내 '유당불내증'이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유당불내증은 모유와 우유를 모두 소화하지 못하는 질병이었기에 정 명예회장은 콩을 대용식으로 떠올렸고, 개발에 들어갔다.

두유는 한 의사의 아이들을 살리고자 한 집념이 만들어낸 산물이었던 셈이다.

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그는 더욱 많은 아이들에게 두유를 공급하고 싶었다. 고민 끝에 장업을 결심했고, 1973년 정식품을 탄생시켰다.

최근에는 두유가 유당불내증 치료식보다 건강음료로 자리를 잡았다. 대신 국내 분유 제조사들이 정 명예회장의 책무를 넘겨받아 손실을 감안하고 특수분유 제조를 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보건복지부 ▷장관실 장관정책보좌관 조종규

◇동의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 이철균 ▷ 산학협력단부단장 이임건 ▷ IPP사업단부단장 천범익 ▷ 지방자치연구소장 박영강

부고

▲ 윤춘식씨 별세, 취영(한국교통대 교수)·왕영(영동병원 원장)씨 부친상 = 4일 오전 5시, 영동병원 장례식장 202호, 발인 6일 오전 6시. ☎ 043-743-4499

▲ 정병일 씨 별세, 정원상(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협력과장)씨 부친상 = 3일 오후 7시 별세, 전남 영광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9시 ☎ 061-351-6000

▲ 임순득씨 별세, 김명국(한국향토음악인협회 부총재·전 적십자사봉사회 충북도회장)씨 모친상 = 4일 오전 5시 50분, 충북 충주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6일 오전 9시. ☎ 043-845-5100

▲ 박성규씨 별세, 박종신(서울대학교 교수)·현신·예신·은신씨 부친상, 김동수(전 조흥은행 지점장)·한명식(태조엔지니어링 사장)·원종덕(㈜알테크노메탈 전무)씨 장인상, 김혜영(한국식품연구원 책임연구원)씨 시부상 = 4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2호, 발인 11월 6일 오전 9시 ☎02-3410-691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송필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수도권 大 단지 감곡 센트럴빌리지
전원주택
필지공급
건축+토목 1억5천 부터
인·허가비, 토목공사 포함
분양가
50% 대출 및
즉시 건축가능
朝鮮日報
조선일보 A16면
2015년 11월4일
이천↔충주↔문경 잇는
중부내륙 고속철도 착공
경기 이천~충북 충주~경북 문경(94.3km)을 잇는 중부내륙
고속철도 공사가 4일 착공된다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일 밝혔다.
이천~충주 구간은 2019년 말 충주~문경 구간은 2021년 완공돼
시속 200km의 준(準)고속철도가 달리게 된다.
현재 버스로 약 2시간 걸리는 이천~문경 구간은 33분으로 단축된다.
감곡역
감곡역
250세대 대단지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투시도
단지투시도
당신이 꿈꾸던 삶!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투시도
단지투시도
단지투시도
교통프리미엄
강남에서 차량으로 50분,
중부내륙철도 이천↔충주 구간 공사 착공 (2019년 개통예정)
고속화 도로 성남↔장호원 신설 (분당 30분대 진입)
지중화시스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인입 지중화 완료
게이티드보안
CCTV 관리사무소 설치, 철저한 외부 출입통제 시스템
검증된 인기
연예인 다수 입주 예정 (가수 현숙 등)
1단지의 성공
1단지 200필지 중 1,2,3,4,5차 공급 완료(6,7,8차 공사 중)
2단지의 기회
2단지 120여 필지 조성 및 공급 중
배산임수입지
풍수지리가 좋은 최고의 명당!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장호원 5분, 감곡IC 3분,
여주 휴게소에서 10분대
선착순 필지지정우선계약
현장답사 서비스 제공
청약계좌 : 농협 312-0152-9732-71 김성호법무사
시행·시공 대승주식회사
마케팅 한국개발(주)
청 약 금 : 일백만원 청약혜택 : 필지 지정 및 우선 계약 현장 답사 서비스 제공 ※ 미계약시 청약금 전액 환불
실제 현장 이미지
분양문의 1899-6333
공휴일 상담가능, 서울사무실 운영 (02-755-6000)